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연풍과학자휴양소건설장과완공된 조선인민군 제621호육종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연풍과학자휴양소건설장을 또다시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종합복사소, 휴양각 등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건설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군인건설자들이 당의 건축사상을 높이 받들고 연풍과학자휴양소를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사회주의문명국의 체모에 어울리는 로동당시대의 자랑스러운 건축물로 훌륭히 일떠세우고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연풍과학자휴양소건설이 완공단계에 이른것만큼 휴양소운영에 필요한 여러가지 설비들과 비품들, 기자재들을 완벽하게 갖추어주기 위한 사업, 지열냉난방체계를 도입하기 위한 사업, 잔디와 관상용꽃관목심기 등 휴양소주변과 호안정리를 잘하는것을 비롯하여 건설을 최상의 수준에서 마무리하는 데서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10월 10일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지휘관들이 군인건설자들의 비뚤된 열의에 맞게 화선선전, 화선선동을 더욱 힘있게 벌리며

건설공사를 립체전, 섬멸전의 방법으로 계획대로 드림없이 밀고나감으로써 연풍과학자휴양소를 훌륭히 완공하여 과학자들에게 안겨주자고 다시금 당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로동당시대의 자랑스러운 창조물로 훌륭히 완공된 조선인민군 제621호육종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명당자리에 특색있게 일떠선 축사들과 아담한 살림집들, 풀판마다에서 구름처럼 떼지어 흐르는 염소, 양들을 환한 미소속에 바라보시며 한쪽의 그림같다고, 한적하던 산

골마을에 천지개벽이 일어났다고, 또 하나의 사회주의선경이 펼쳐졌다고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육종연구소, 재배먹이풀품종비교포진, 종축우리, 문화회관, 살림집 등 육종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건설 및 관리운영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조선인민군 제621호육종장은 우량품종의 풀먹는 집집승육종 및 사양관리방법을 완성하고 널리 보급하는데서 중심기지, 거점이 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이날 새 집에 입사한 백성진, 윤성희의 가정을 돌아보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조선인민군 제621호육종장은 불수록 장관이라고, 그 어느곳을 돌아보아도 흠잡을데가 없다고 하시면서 부강조국건설에 이바지하려는 군인건설자들의 불타는 애국심에 떠받들리워 선군조선의 거창한 창조물이 또 하나 일떠섰다고 거듭 만찬을 표시하시고 그들에게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감사를 주시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가족들에게 조전을 보내시였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유가족들에게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5년에 즈음하여 리희호녀사와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포함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민족의 화해와 단합, 나라의 통일을 위해 기울인 노력과 공적을 잊지 않을것이며 그가 남긴 업적은 후세에 길이 전해지게 될것입니다. 나는 유가족들과 김대중평화센터 관계자들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생전의 뜻을 이어 통일에국사일에 계속 앞장서나가기를 바랍니다.

김정은

주제 103(2014)년 8월 18일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보내신 화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유가족에게 전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인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5년에 즈음하여 보내신 화환이 17일 유가족에게 전달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보내신 화환을 김양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 김홍업에게 정중히 전달하였다.

화환의 땀에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추모하여》, 《김정은》이라고 쓰여져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5년에 즈음하여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전하도록 하신 말씀을 김양건비서가 정중히 전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5년에 즈음하여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전하도록 하신 말씀을 김양건비서가 정중히 전하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절세의 위인들과 김대중 전 대통령사이의 관계는 나라와 민족, 통일을 위한 길에서 맺어진 가장 숭고하고 진실한 관계이라고 하시면서 유가족들과 김대중평화센터 관계자들이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뜻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유지를 잘 받들어나가기 바란다라고 말씀하시였다.

김홍업과 김대중평화센터 관계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친히 조건과 화환, 은정어린 말씀을 보내주신데 대해 감동을 금치 못해하면서 그에게 유가족들과 김대중평화센터 관계자들의 절절한 마음을 담아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하였다.

여기에는 림동원 전 통일부 장관, 박지현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김대중평화센터 관계자들이 참가하였다.

그들은 이날 군사분계선을 통과하여 개성에 도착하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유가족이 선물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유가족이 선물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드리는 선물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 김홍업

이 17일 김양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에게 전달하였다.

본사기자

얼마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남조선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5년에 즈음하여 유가족들에게 조전과 화환을 보내주신 사실은 지금 온 삼천리에 격정의 파도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화환의 땀기에 쓰여진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추모하여》, 《김정은》이라는 글씨는 절세위인의 한없이 고결하고 뜨거운 사랑과 의리심을 전하며 8월의 대지에 빛을 뿌리고있다.

그이께서는 유가족들에게 보내신 조전에서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5년에 즈음하여 심심한 애도의 뜻을 포함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민족의 화해와 단합, 나라의 통일을 위해 기울인 노력과 공적을 잊지 않을것이며 그가 남긴 업적은 후세에 길이 전해지게 될것이라고, 자신께서는 유가족들과 김대중평화센터 관계자들이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뜻을 이어 통일에국사일에 계속 앞장서나가기를 바란다라고 사랑과 믿음의 글발을 남기시였다.

그리고 절세의 위인들과 김대중 전 대통령사이의 관계는 나라와 민족, 통일을 위한 길에서 맺어진 가장 숭고하고 진실한 관계라는 은정어린 말씀도 보내주시였다. 나라와 민족, 통일을 위한 길에서 맺어진 가장 숭고하고 진실한 관계. 얼마나 겨레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는 믿음의 말씀인가.

북남관계는 불신과 대결의 길은 먹구름에 가리워져있지만 위인의 숭고한 의리, 통일에국적지가 구절구절 높뛰는 조전과 말씀은 차디찬 분

계선의 얼음장을 녹이며 남녘인민들의 마음에도 화해와 통일의 봄빛을 비추고 있다.

돌이켜보면 백두산 절세위인들께서 민족과 통일을 위한 길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과 그의 가족들에게 돌려주신 사랑과 믿음은 결코 어제오늘에 와서 시작된것이 아니다.

감격도 새로운 2000년 6월, 력사적인 평양상봉의 날에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김대중대통령과 그 일행을 뜨겁게 맞아주고 환대해주시는 이야기는 오늘날 사람들속에

에 새워주시였으며 그의 건강도 해아려 연회장의 의자도 편리한것으로 바꾸어주도록 하는 다심한 조치도 취해주시였다.

연회상에서 대통령과 부인이 따로따로 앉아있는것을 보시고 같이 앉도록 다심한 사랑을 부어주시분도 장군님이시고 우리가 진짜 한가족, 이제야 우리 일가가 만났다고 민족애와 통일의지가 넘치는 뜻깊은 유모아로 좌장을 더욱 화기애애하게 해주신분도 장군님이시였다.

평양상봉기간에 김대중대통령과 그 가족에게 돌려주신 뜨거운 환대에 대해 당시 남조선의 어느 한 출판보도물은 《김정일국방위원장님 보여준 따뜻한 정성과 성심, 환대와 수고, 준비와 노력은 국제사회의 국가수반외교와는 비교할수 없는 진한 퍼즐의 흐름이요, 최고의 영접이었다.》고 감동에 겨워 전하였다.

력사적인 평양상봉을 마치고 남조선으로 돌아간 김대중대통령과 부인은 평양에서 받은 뜨거운 환대에 대해 두고두고 이야기하였으며 인내성있는 노력을 기울일것이라는 통일의 리행과 의지를 천명하시였다.

그러던 그가 뜻밖에도 서거하였다는 비보가 울려왔을 때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그 누구보다 가슴아파하시며 심심한 애도의 뜻과 함께 동포애의 정이 어린 조전과 화환을 보내주시였으며 서울에 특사조의방문단을 파견하시는데는 조치도 취해주시였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2년전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0돐경축 열병식에서 하신 뜻깊은 연설에서도 진정으로 나라의 통일을 원하고 민족의 평화번영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손잡고나갈것이며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책임적이고도 인내성있는 노력을 기울일것이라는 통일의 리행과 의지를 천명하시였다.

나라와 민족, 통일을 위한 길에서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김대중 전 대통령사이에서 맺어진 가장 숭고하고 진실한 관계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어 년대와 년대를 이어 앞으로도 끝없이 흐르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김철호

통일의 길에서 맺어진 숭고한 의리

서 전설처럼 전해지고있다. 반세기이상 갈라져 총부리를 마주하고 살아오다니 불신과 대결의 장벽이 높아질대로 높아진 북남관계였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응어린진 그 차디찬 불신의 감정은 언제가야 풀릴것인지 않았다. 하기에 당시 평양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던 남측대통령과 일행은 서려드는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였었다. 그러던 그들을 몸소 비행장까지 마중나오시며 동포애의 정으로 따듯이 맞이하신 장군님이시였다. 그 력사적인 장면을 TV로 지켜보며 온 세상이 격정과 감동을 터치었고 겨레의 가슴마다에 응어려져있던 불신의 감정은 봄눈 녹듯 사그라졌다. 어찌 이뿐이랴.

어버이장군님께서서는 김대중대통령을 년장자로 존대하고 내세워주시면서 그의 속소도 찾아주시고 기념촬영을 할 때에는 그를 가운데자리

에 세워주시였으며 그의 건강도 해아려 연회장의 의자도 편리한것으로 바꾸어주도록 하는 다심한 조치도 취해주시였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2년전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0돐경축 열병식에서 하신 뜻깊은 연설에서도 진정으로 나라의 통일을 원하고 민족의 평화번영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손잡고나갈것이며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책임적이고도 인내성있는 노력을 기울일것이라는 통일의 리행과 의지를 천명하시였다.

본사기자 김철호

장군님은 오늘도 선군길에 계신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아래 인민의 꿈과 리상이 현실로 펼쳐져 어디가나 행복의 웃음소리 차넘치는 속에 뜻깊은 선군절을 맞이하게 된다.

돌이켜보면 공화국에서 지난해에 뜻깊은 선군절이 제정된데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선군령도 업적을 빛나게 계승하여 국력이 강하고 인민들이 세상에 부럼없이 잘사는 사회주의강성국가를 하루빨리 일떠세우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총정과 애국의 의지가 깃들여있었다.

주체49(1960)년 8월 25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군위 서울류경수제105명고사단에 대한 현지지도로 진행하시었다.

이날의 성스러운 발걸음에는 앞으로 인민군대가 무도자에 대한 충실성이 높고 무적의 전투력과 위용을 떨치며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에 다 맡아 수행할수 있는 불패의 장군으로 키우시려는 숭고한 뜻이 어려있었다.

아버이수령님을 모시고 조선인민군 군위 서울류경수제105명고사단에 불멸의 자욱을 새기신데 이어 장군님께서는 김일성종합대학의 통남산마루에 오르시어 조선을 누리에 떨칠 신념의 맹세를 다지시었다.

총대가 약하면 망국민의 운명을 면치 못한다는 력사의 진리, 우리 공화국을 집어삼키려는 미제의 끈질긴 침략도발책동으로부터 선군만이 조국을 지키고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는 유일무이한 길이다.

이것을 천리해안의 예지로 통찰하신 아버지장군님이시기에 력사의 그날로부터 생애의 마지막시 까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지켜 주셨을, 마른날 가림없이 선군의 길을 걷고 또 걸으시었다.

1960년대에 그이께서는 선군정치실현의 확고한 담보와 토대를 마련하시기 위해 일당백의 고향인 대덕산초소를 비롯하여 수백차례 걸쳐 인민군부대들을 찾으시였으며 1970년대에는 전군주체사상화를 군건설의 최고강령으로 제시하시어 그 실현을 위해 쉬임없이 군평도의 나날을 보내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선군령도에 의하여 인민군대가 수령의 군대, 인민의 군대로서의 면모를 훌륭히 갖춘 무적필승의 무장력으로 자라났으며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진무장화, 전격요새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전환적국면이 일어나고 미국의 거

들되는 군사적도발책동속에서도 사회주의조선은 끄떡없이 전진할수 있었다.

돌이켜보면 자주 길로 나아가는 공화국에 있어서 1990년대는 참으로 간고하고도 시련에 찬 시기였다.

일부 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의 좌절이라는 대정치파동이 세계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사회주의종말》을 떠드는 제국주의연합세력의 총공격의 화살이 동방조선에 집중되었고 민족의 대국상과 련이은 자연재해로 공화국의 인민들은 고난의 행군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바로 그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지켜 선군의 총대를 더 높이 드시었다. 지금은 뛰니 뛰니 해도 나라부터 지키고 봐야 한다. 나라를 지키기만 하면 경제와 인민생활을 추켜세우는것은 큰 문제가 아니다. 이런 역척의 신념을 간직하시고 사랑이나 총알이나 하는 력사의 갈림길에서 민족의 억만년미래를 위해 단연코 선군의 길을 택하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었다.

아이들이 실맞이공연을 준비하고 기다리던 학생소년군이 아니라 인민군군인들이 지켜선 다박출초소를 찾으신 그 뜻깊은 일화는 이렇게 생겨난것이다.

력사의 그날부터 전선에서 전선으로 총횡무진하시며 조국수호의 길을 헤쳐가신 아버지장군님.

아버이수령님의 령도업적이 깃든 뜻깊은 사적부대들부터 먼저 찾으시는것을 어길수 없는 철칙으로 삼으시고 찾으시는 인민군부대들마다에서 군인들에게 떨적의 선군의지가 담긴 기관총과 자동보총, 쌍안경을 안겨주시였으며 백두의 혼련열풍이 나뉠치는 혼련장들에서 군인들의 종합전술훈련과 화력격투훈련을 지도해주신 위대한 선군령장의 탁월하고 세심한 손길이 있어 인민군대는 그 어떤 현대전에도 능히 대처할수 있는



공격수단과 방어수단들을 완비한 필승불패의 혁명강군으로 자라나게 되었다.

물없이는 받아안을수 없고 감동없는 들을수 없는 고귀한 헌신의 자욱으로 수놓여져있다. 자그마한 패수정으로 초도방어대

와 해군부대를 시찰하시어 방직을 이어가는 자신의 가슴은 형언할수 없이 쓰리고 아팠다고, 우리가 이제 승리의 통장훈을 부르게 될 때 인민들은 내가 왜 경제사정

계 사회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반미대결전에서 자주적근위병으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다하리라는 크나큰 기대와 믿음을 안겨주시였으며 한 발 잘못 디디면 천길벼랑 밑으로 굴러떨어질수 있는 오성산의 칼벼랑길로 야전차를 밀며 오르신 그이의 선군장정의 길은 그야말로 증증첩첩 시련과 난관이 겹쌓인 가시덤불길이었다. 그것은 결코 누구나 걸을수 있는 길이 아니었다.

하지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끝까지 책임지시려는 자각으로 은 넋을 불태우시며 선군장정의 길을 이어가시었다.

주체85(1996)년 3월 20일은 하루 전선동부의 인민군부대들을 시찰하시며 몸소 운전대를 잡고 달린 주행거리가 1 000여리에 달한다는 하나의 사실을 통해서도 그이께서 헤쳐가신 선군장정의 길이 얼마나 멀고 험난한가 하는것을 잘 알수 있게 한다.

이렇게 그이께서 혁명생애의 전기간 조국과 인민을 위해 불철주야로 이어가신 선군장정의 길은 무려 167만 4 610여리에 달한다.

이렇게 그이께서 혁명생애의 전기간 조국과 인민을 위해 불철주야로 이어가신 선군장정의 길은 무려 167만 4 610여리에 달한다.

이 불멸의 선군장정이 있어 그처럼 어려운 속에서도 공화국의 국력이 비상히 강화되고 군대와 인민이 하나로 뭉쳐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비약적인 성과를 이룩해가는 놀라운 현실이 펼쳐질수 있는것이다.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승숙은 공장들과 힘겨운 생활난을 겪고있는 인민들의 정상을 눈앞에 보면서

공장이나 농촌이 아니라 군인들을 찾아 전선시찰의 길에 이어가는 자신의 가슴은 형언할수 없이 쓰리고 아팠다고, 우리가 이제 승리의 통장훈을 부르게 될 때 인민들은 내가 왜 경제사정

이 곤란하다는것을 알면서도 끊임없이 전선시찰의 길을 이어갔는가 하는것을 리해하게 될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잡았다고 뜻깊은 추억의 말씀을 하시었다.

진정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생애 다 바쳐 걸으신 선군장정의 길이 있어 인공지위성이 대지를 박차고 우주로 치솟아 민족의 긍지는 하늘에 닿고 핵시험의 장쾌한 폭발이 지구를 흔들며 개위 선군조선의 무진막강한 힘이 만방에 파시될수 있었으며 주체철, 주체비날론, 주체비료가 팡팡 쏟아져 나오고 CNC공작기계바다가 펼쳐져 강성대국으로 내달는 조국인민들의 역센 기상이 높이 펼쳐질수 있었다.

오늘 선군애국위업의 진두에는 백두산의 기상을 체현하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서계신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지난해 8월 뜻깊은 선군절을 맞으며 발표하신 로작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선군혁명사상과 업적을 길이 빛내여나가자》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사는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철저한 반제자주, 끝없는 애국헌신의 력사이며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에 대한 절대적 믿음과 친어버이사람으로 수놓아진 숭고한 믿음과 사랑의 령도사이라고, 선군은 우리 장군님께서 한평생 간직하고 구려해오신 드립없는 혁명신조였으며 조국투쟁에 빛나는 승리와 불멸의 업적을 수놓으신 위대한 혁명실천이었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우리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위대한 선군의 가치를 높이 들고 영원히 승리만을 펼쳐갈것이라고 확언하시었다.

불세출의 선군령장인 위대한 장군님의 모습 그대로 오성산과 판문점, 초도를 비롯한 인민군부대들로 선군의 거룩한 발자취를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모습에서 세계는 조선의 불패성과 승리, 찬란한 미래를 확신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사상과 업적을 계승하여 영원히 승리만을 펼쳐가시려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한 의지이다.

철세위원의 그 숭고한 뜻과 의지에 발돋워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업적은 길이 빛나고있으며 장군님은 오늘도 선군길에 계시며 조국과 겨레의 밝은 앞날을 축복해주시다.

본사기자 주일봉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말씀중에서

《선군은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시고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령도하여오신 조선혁명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며 승리와 영광의 기치입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는 력사상 처음으로 선군혁명의 길을 개척하시어 선군의 새 력사를 창조하고 선군시대를 열어놓으시였습니다.》

《우리는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선군혁명사상과 업적을 충직하게 계승하고 길이 빛내여나가야 합니다.》

《선군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이고 혁명실천이었으며 장군님의 정치리념이고 정치방식이였습니다.》

《우리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위대한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들고 영원히 승리만을 펼쳐갈것입니다.》

공화국의 강대성과 휘황찬란한 미래를 약속해준 뜻깊은 선군절이 하루하루 다가오는 지금 겨레의 가슴속에 더욱 숭엄히 안겨오는것은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아버지장군님 입교하신 야전솜옷이다.

야전솜옷. 사연에도 없는 이 단어가 인민들의 심장을 세차게 울리며 날과 날을 이어 더욱더 뜨겁게 새겨지는것은 무슨 리유에서인가.

그것은 위대한 장군님 입으셨던 단벌솜옷-야전솜옷에 한평생 나라와 인민을 위해 자신을 초월처럼 태우시며 애국헌신의 길, 조국수호의 길을 끝없이 이어가신 절세의 애국자의 눈보라한생이 뜨겁게 어렸기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장군님의

이것이 바로 장군님의

이것이 바로 장군님의

이것이 바로 장군님의

이것이 바로 장군님의

이것이 바로 장군님의

입으시고 세월의 눈비를 다 맞으시며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지키시고 이 땅위에 무강조국의 튼튼한 담보를 마련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업적이 어려와 격정을 금치 못하는 공화국의 인민들이다.

절세위원의 색깔은 야전솜옷을 뜨거운 가슴에 안을수록 우리 장군님께서 눈비를 다 맞으시며 넘고 헤치신 철령의 가파로운 산밭이며 오성산의 칼벼랑길, 파도가 기

공격수단과 방어수단들을 완비한 필승불패의 혁명강군으로 자라나게 되었다.

물없이 받아안을수 없고 감동없는 들을수 없는 고귀한 헌신의 자욱으로 수놓여져있다. 자그마한 패수정으로 초도방어대

와 해군부대를 시찰하시어 방직을 이어가는 자신의 가슴은 형언할수 없이 쓰리고 아팠다고, 우리가 이제 승리의 통장훈을 부르게 될 때 인민들은 내가 왜 경제사정

이 불멸의 선군장정이 있어 그처럼 어려운 속에서도 공화국의 국력이 비상히 강화되고 군대와 인민이 하나로 뭉쳐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비약적인 성과를 이룩해가는 놀라운 현실이 펼쳐질수 있는것이다.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승숙은 공장들과 힘겨운 생활난을 겪고있는 인민들의 정상을 눈앞에 보면서

공장이나 농촌이 아니라 군인들을 찾아 전선시찰의 길에 이어가는 자신의 가슴은 형언할수 없이 쓰리고 아팠다고, 우리가 이제 승리의 통장훈을 부르게 될 때 인민들은 내가 왜 경제사정

전선서부에 자리잡고 있는 그리높지 않은 대덕산에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성스러운 군평도의 사적이 깃들여있다.

은 강산이 하얀 눈으로 덮인 주체52(1963)년 2월 6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몸소 최전선에 자리잡고있는 대덕산초소를 찾으시었다.

이무렵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5차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전략적 로선을 관철하기 위하여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었다. 이러한 시기에 아버지수령님께서 대덕산초소를 찾으시것은 인민군군인들에게 위한 투쟁에서 높이 들고나가야 할 전

장 치렬하고 힘겨웠던 반미대전의 그 낮과 밤이 다 어리었다. 장군님께서 야전솜옷을 벗지 않으시고 눈보라만리, 사선천만리를 헤쳐 오신 그 길에서 조선은 인공위성제작 및 발사국, 핵보유국으로 치솟고 민족의 존엄과 국력은 최상최대로 떨치게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수수한 야전솜옷이야말로 혁명가는 생의 순간순간 자기 조국과 인민을 어떻게 지키고 사랑해야 하며 나라와 인민을 위해 어떻게 헌신해야 하는가를 영원한 귀감으로, 실천으로 보여 주신 우리 장군님의 애국헌신의 력사가 깃들여있는 선군장정의 증견물이다.

하기에 오늘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자주로 존엄높고 승리로 위용떨치는 조국의 모습 보며 눈물속에 우리 장군님의 단벌솜옷-야전솜옷을 되새기고있으며 위대한 장군님의 모습으로 전진길, 현지지도의 길을 쉬임없이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선군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갈 불타는 일념으로 가슴끓이고있다.

본사기자 리경순

전선서부에 자리잡고 있는 그리높지 않은 대덕산에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성스러운 군평도의 사적이 깃들여있다.

은 강산이 하얀 눈으로 덮인 주체52(1963)년 2월 6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몸소 최전선에 자리잡고있는 대덕산초소를 찾으시었다.

이무렵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5차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전략적 로선을 관철하기 위하여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었다. 이러한 시기에 아버지수령님께서 대덕산초소를 찾으시것은 인민군군인들에게 위한 투쟁에서 높이 들고나가야 할 전

장 치렬하고 힘겨웠던 반미대전의 그 낮과 밤이 다 어리었다. 장군님께서 야전솜옷을 벗지 않으시고 눈보라만리, 사선천만리를 헤쳐 오신 그 길에서 조선은 인공위성제작 및 발사국, 핵보유국으로 치솟고 민족의 존엄과 국력은 최상최대로 떨치게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수수한 야전솜옷이야말로 혁명가는 생의 순간순간 자기 조국과 인민을 어떻게 지키고 사랑해야 하며 나라와 인민을 위해 어떻게 헌신해야 하는가를 영원한 귀감으로, 실천으로 보여 주신 우리 장군님의 애국헌신의 력사가 깃들여있는 선군장정의 증견물이다.

하기에 오늘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자주로 존엄높고 승리로 위용떨치는 조국의 모습 보며 눈물속에 우리 장군님의 단벌솜옷-야전솜옷을 되새기고있으며 위대한 장군님의 모습으로 전진길, 현지지도의 길을 쉬임없이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선군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갈 불타는 일념으로 가슴끓이고있다.

본사기자 리경순

이것이 바로 장군님의

이것이 바로 장군님의

이것이 바로 장군님의

이것이 바로 장군님의

이것이 바로 장군님의

이것이 바로 장군님의

이것이 바로 장군님의

이것이 바로 장군님의

이것이 바로 장군님의

이것이 바로 장군님의

이것이 바로 장군님의

이것이 바로 장군님의

이것이 바로 장군님의

이것이 바로 장군님의

이것이 바로 장군님의

이것이 바로 장군님의

이것이 바로 장군님의

이것이 바로 장군님의

이것이 바로 장군님의

이것이 바로 장군님의

이것이 바로 장군님의

이것이 바로 장군님의

이것이 바로 장군님의

이것이 바로 장군님의

이것이 바로 장군님의

이것이 바로 장군님의

이것이 바로 장군님의



언제나 백승만을 펼쳐갈 결의에 넘쳐있는 인민군군인들

최후 승리를 향한 힘찬 발걸음

두자루의 권총으로부터 시작되어 제국주의 침략세력을 전복케 하는 무적강군으로 자라난 공화국의 혁명무력은 오늘 경에 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빛나는 승리의 역사를 줄기차게 이어나가고있다.

두해전 전선길에서 뜻깊은 전진걸을 맞으신 경에 하는 원수님께서는 자신께서는 김일동지께서는 걸으신 선군의 길을 따라 조국과 우리 혁명을 위하여 변함없이 동무들과 함께 팔을 끼고 어깨를 걸고 곳곳이 한 길을 걸어갈 굳은 마음을 다시한번 굳게 다진다. 인민의 행복과 안녕, 백두산대국의 존엄을 지켜 혁명의 총대를 더욱 굳게 틀어잡자고 격정에 넘쳐 말씀하시었다.

너무도 뜻밖에도 민족의 아버기를 잃은 슬픔과 비분의 피눈물속에 밝아온 주제 101(2012)년 새해의 아침 그이께서 찾아가신 곳은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

도의 첫 발자취가 어려웠던 근위 서울류경수계105명크사 단이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평생 걸으신 선군길을 변함없이 이어가시려는 불변의 의지를 굳은 결심으로 한자욱, 한자욱 뚜렷이 짚으시며 원수님께서 는 그 무슨 《급변사태》, 《변화》를 떠들어대며 공화국의 붕괴를 운운하는 호전세력들의 정수리에 호된 불소나기를 내리셨다.

적대세력의 위협천만만 《키 리브르》, 《독수리》 북침합동군사연습소동으로 조선반도에 다치면 터질듯한 일촉즉발의 전쟁위기가 닥쳐왔을 때에도 원수님께서 는 강인담대한 배짱과 조국수호의지를 안으시고 나라의 최전방초소인 관문점을 찾으신 것이다.

총을 들고 달려드는 원수와는 대조를 들고 맞서야 한다. 이는 배심도 미제와 호전세력들이 이 땅에 전쟁의 검은 구름을 몰아오려고 도발의

기회를 호시탐탐 노릴 때마다 최대의 열점지역들에 위치한 서해의 심방어대들과 오성산, 가칠봉초소를 비롯한 적진과 직접 맞서고 있는 최전연초소들을 찾으신 원수님의 모습은 겨레의 가슴속에 무한한 힘과 용기, 민족의 밝은 미래에 대한 확신을 안겨주었다.

그이의 현지시찰을 목격한 영국의 한 언론은 《김정은령도자께서 일촉즉발의 위기가 조성된 엄중한 시기 세계에서 가장 침체한 지역인 이곳을 시찰하신것은 미국과 남조선군부의 간담을 서늘케 하는 피성벽력파도 같다. 그이의 시찰은 미국의 그 어떤 위협공갈에도 굴복하지 않는 조선인민의 역센 기상과 적들이 감히 침략전쟁을 도발한다면 조국통일위업을 기어이 이룩하고야말 단호한 의지를 반영하고있다.》

경에 하는 김정은령도자의 선군혁명령도가 있기에 조선인민은 미국의 암살책동을 물

리치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김정은령도자는 조선의 통일을 안아오실 위대한 선군령장이시며 반제전선의 최고사령관이다.》라고 소리를 높여 격찬하였다.

수령님께서 걸으셨고 장군님께서 헤치셨던 선군혁명의 그 길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가 꼭 가야 할 길이다. 나는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한평생 걸고 걸으신 선군혁명의 길을 끝까지 이어나갈것이라고 하시며 원수님께서 는 순간도 쉬고있지 않는 선군장정의 길을 이어가고계신다.

지난해 3월에는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 데 대한 탁월한 전략적로선을 제시해주셨고 8월에는 《김일동지의 위대한 선군혁명사상과 업적을 길이 빛내여나가지》는 역사적로작을 발표하시어 선군으로 최후승리를 이룩해나갈수 있는 진로를 명시해주셨다.

그이께서는 얼마전에도 자

제의 힘과 기술로 완성한 전술로케트탄시험발사를 여러 차례 지도하시면서 적대세력의 그 어떤 침략책동도 단호히 짓부시고 나라와 민족의 평화와 안전을 굳건히 수호하며 반미대결전의 최후승리를 안아올수 있는 강력한 국방력을 더욱 튼튼히 다져주시었다.

천출명장이 계시어 그 어떤 대적이 달려든대도 조금도 끄떡 안할 승리의 신심과 락관을 가지고 강성국가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치고있는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이다.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길을 불변의 진로로 삼으시고 드립없는 계승의 한길을 걸으시는 원수님의 발걸음은 강성국가와 조국통일의 최후승리를 향한 힘찬 발걸음이며 그 걸음을 따라 공화국은 희망찬 미래를 향하여 보무당당히 나아가고있는 것이다.

백두산총대의 대강

김윤식

끝없는 감격 설레는 환희 이 땅에 가득 넘쳐나는 선군걸 가슴에 차오르는 긍지 든든한 배심을 안고 우리는 더욱 역세게 틀어잡는다 오, 백두산총대!

백두의 산악처럼 굳세고 백두의 눈보라를 서리발로 비껴안은 총대 시련의 만단고비를 넘으면서도 목숨처럼 놓지 않은 백두산총대 뜻깊은 이날에 무엇을 말하는가

1960년 8월 25일 선군혁명령도의 첫 자욱을 찍으신 그 력사의 날로부터 장장 50여년 승리와 영광의 세월을 이 땅에 펼쳐오신 천출명장 우리 장군님 우러러 더치고더치는 장보의 격정

뜨겁게 어뢰와라 8월의 그날로부터 기나긴 세월 사생결단의 각오를 안고 우리 장군님 이어가신 선군장정의 천만리 넘으신 험준한 산밭이며 파도세찬 날바다 길이

아, 장군님 걸으신 선군의 길 그 길을 이어가시는 김정은원수님 줄기차게 이어지는 선군의 역사속에 더욱더 강위력한 필승의 무기로 빛을 뿌리는 백두산총대여

대적이 덤벼들어도 두렵지 않아라 그 어떤 시련도 난관도 이겨낼수 있어라 백두산총대가 있기에 우리는 백두산총대로 천하제일강국을 기어이 일떠세우리라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한없는 긍지와 영광으로 빛나는 선군걸 백두산총대는 대답한다 이 땅에 영원할 선군의 력사가 있어 승리는 언제나 조선의것 조선은 백승만을 떨쳐가리라

기자: 뜻깊은 선군걸을 맞으며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수호하고 이 땅의 평화를 지켜준 공화국의 선군정치에 대한 청송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전쟁을 막는 애국의 보검

— 국제문제연구소 김수길과 기자가 나눈 대담 —

화국의 선군정치에 의하여 지켜진다고 말할수 있다. 제국주의세력의 위협과 공갈, 침략책동에 당당하게 맞서지만 그를 밀받침하는 강력한 실제적힘이 있어야 한다. 아무런 담보도 없이 자자를 표방하고 제국주의세력의 침략과 도전에 대해 말로만 배격해서는 저지시킬수 없으며 민족의 존엄과 평화를 지킬수 없는 것이다.

선군정치는 공화국이 강력한 군사력에 의거하여 제국주의세력의 침략책동을 제압하고 평화적통일과 안정을 보장하고 침략세력의 끊임없는 암살책동에 초강경으로 맞서 언제나 련전전승을 이룩하게 하였다.

기자: 공화국의 선군정치가 조선반도에서 실제로 전쟁을 막아온것은 지난 수십년의 력사가 증명해주지 않는가.

김수길: 그렇다. 지난 세기 60년대에 《카리브해위기》를 통해 기고만장해진 미국은 《푸에블로》호사건 을 계기로 공화국에 대한 침략전쟁에 불을 달려고 미쳐 날뛰었다. 하지만 《보복》에는 보복으로,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 대담해나선 공화국군대와 인민의 철 의 심념과 그 어떤 강적도 쳐부실수 있는 힘을 지닌 조선인민군의 위력앞에 겁을 먹은 미국은 사죄문에 도장

을 찍고 제 소굴로 돌아가 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후 《EC-121》대형간첩비행기 사건, 관문점사건때에도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세력들은 선군의 기치높이 민족운명의 수호전에 떨쳐나선 공화국군대와 인민앞에 수치스러운 패배만을 당하였다. 지난 세기 90년대초부터 시작된 선군정치로 존엄하고 무진막강한 군사적위력을 지닌 공화국앞에 쓰디쓴 참패를 거듭하고있다.

침략과 전쟁이 없는 자주적이며 평화롭고 정의로운 세계에서 살려나가는 것은 우리 민족과 진보적인류의 념원이며 지향이다. 그러나 침략과 약탈을 본성으로 하는 제국주의세력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한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을 막론하고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자면 마땅히 군력을 백방으로 다져야 한다. 군력이 강하면 평화와 안전이 담보되고 군력이 약하면 침략세력에 먹히 우고 세계의 평화가 교란되게 된다것이 오늘날 국제사회가 보여오는 엄연한 현실이다. 미국이 나토의 주도하에 전 유고슬라비아를 침략하여 평화를 유린한것, 《대량살륙무기전과방지》라는 허울좋은 관란밀에 이라크를 침공한것도 그 나라들의 군력이 약했기때

문이다.

미국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리비아 등 세계 이르는 곳마다에서 《세계의 경찰》로 자처하면서 침략과 전쟁을 일삼고있지만 유독 조선반도에서만은 감히 전쟁의 불을 피우지 못하고있는것이 공화국의 선군정치의 위력앞에 겁을 먹고있기 때문이라는것은 오늘날 세계가 인정하고있는 엄연한 현실이다.

선군정치와 그것으로 다져진 강력한 전쟁억제력이 없었다면 이 땅에서는 미국에 의해 이미 열백번도 더 전쟁이 터졌을것이고 우리 민족은 무수한 핵전쟁의 참화를 입었을것이다. 선군정치가 있음으로 하여 지금까지 이 땅에서 평화도 보장되고 남조선인민들도 그 자위적보호권안에서 편안히 지낼수 있었으며 우리 민족구리 통일의 문을 여는 6.15시대도 펼쳐질수 있었다.

기자: 선군은 앞으로 정세가 어떻게 변해도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절대 불변의 기치라고 생각한다.

김수길: 이 세상에 제국주의가 남아있고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침략과 전쟁책동이 계속되는 한 공화국은 이 미 선례한 선군의 길로 끝까지 나아가것이다. 지금 이 시각에도 남조선의 하늘과 땅, 바다에서는 북침을 노린

《북의 선군정치는 남북모두를 보호하고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고귀한 유산인 선군정치는 민족의 존엄과 운명을 지키고 민족통일과 강성번영을 확고히 담보하는 애국, 애족, 애민의 정기로 겨레의 절대적인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있다.

《북의 선군정치는 힘으로 미국의 군사적공격에 반격할수 있는 충분한 자위적무장력을 갖추었고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자립적으로 경제를 꾸려나갈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갖추었다.》(남조선인터네트홈페이지 《통일뉴스》)

《북의 막강한 군력이 없었다면 미국은 언제나 북을 침략했을것이며 우리 나라에는 전쟁이 났을것이다. 북의 선군정치는 남북모두를 보호하고있다.》(남조선 《통일연대》 인터넷홈페이지)

《선군은 자기 운명을 자기 힘으로 개척해나가는 자위정신을 구현한 정치이며 자기 존엄을 지킬수 있는 불패의 위력을 다지게 하는 정치이다. 북의 핵과 미사일운 제힘으로 민족의 자결을 지켜려는 자주성의 산물이고 외세의 침략을 짓누를수 있는 자위적무력이다.》(남조선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인터넷홈페이지)

《북의 선군정치는 민족자주의 정치이자 민족자강의 힘, 우리 민족전체의 힘이다. 제국주의 미국에 대한 고압정치, 민족대단결을 실현하는 민족대단합정치의 선군정치는 온 겨레에게 우리 민족제일주의, 반미자주의식을 심어주고있다. 북의 선군정치는 평화를 지키는 총대이다.》(재미동포 김주연)

《우리는 공화국의 핵무기가 조선반도의 평화를 수호하는 강력한 수단이라고 단언한다. 공화국의 선군정치가 있는 한 조선반도는 외세의 총알 한방 날아들지 못할것이다.》(재우크리나동포 리용술)

《북민중이 사랑알보다 총알이 더 귀중하다며 허리띠를 조이며 이룩한 군사력에 의해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방지되고 그 덕에 평화가 유지되고있다.》(재미동포 김현환)

《김정일 장군은 조선이 낳은 가장 위대한 절세의 민족적영웅이다. 그이께서는 조선을 미국분토를 날려보낼수 있는 충분한 군사적능력을 가진 나라로 만드셨다. 그이의 령도밑에 공화국은 핵보유국으로 되었다. 가장 위대한 강철의 령장, 뛰어난 사령관이라는 말은 미

국의 모든 핵전쟁위협과 제재, 고립책동에 맞서 작은 나라인 조선을 령도하시어 주요 핵보유국의 지위에 올려세우신 김정일령도자께 드려야 할 응당한 칭호이다.》(재일동포 김명철)

《조국땅위에 그리고 세 계만방에 핵보유국의 선언이 울린것은 전적으로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 김정일장군님의 탁월한 선군정치의 결과이다. 조선은 앞으로 백년, 천년, 만년이 가도 김일성주석님의 뜻으로 승리하고 김정일장군님의 선군정치로 빛날것이다.》(재로씨야동포 로영진)

《위대한 장군님께서 정력적인 선군령도로 공화국을 핵보유국, 인공지구위성발사국으로 만드시어 조국의 존엄을 온 누리에 떨치셨다. 그분의 위엄은 김정은령도자에 의해 한치의 드림도 없이 계승되고있으며 조국통일의 앞길에 밝은 전망이 약속되어있다.》(재우즈베끼스스탄동포 주영일)

탁월하고 세련된 선군령도로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고 강성국가건설과 조국통일의 굳건한 토대를 마련하신 위대한 장군님은 선군정치와 더불어 오늘날 민족의 마음속에 영생하게 되신다. 본사기자

선군의 한길로 끝까지

뜻깊은 선군걸이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력사에 류례없는 애국의 선군정치로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수호하고 빛내이신 아버지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이 가슴을 파고든다.

지금도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나날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진다. 제국주의의 반공화국인 살판공이 휘몰아치는 속에 인민들이 허리띠를 조이고 살지 않으면 안되었지만 그에 대비할수 없게 고생을 제일 많이 하시고 만년시련을 앞장에서 헤쳐가신 분이 장군님이시였다. 제국주의 때무리들이 우리 나라를 삼켜보겠다고 사면팔방에서 달려들던 그때 장군님께서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지 않으셨더라면 과연 어떻게 되었겠는가. 존엄높은 우리 공화국도 지켜내지 못했을

것이고 인민들은 제국주의의 수 치스러운 노예의 운명에 처하였을것이며 이 땅에는 전쟁의 참화가 연번도 더 빚어졌을것이다.

선군이 있어 조국을 지키고 온늘은 강성국가건설의 높은 봉우리에 올라선 우리 군대와 인민이 아닌가.

정녕 선군은 위대한대원수님들께서 물려주신 최대의 애국유산이고 민족의 운명개척과 밝은 미래를 위한 만능의 보검이다.

우리는 누가 뭐라든 어디서 어떤 바람이 불어오든 경에 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탁월한 령도따라 선군의 한길로 끝까지 걸어나감으로써 이 땅위에 통일되고 번영하는 강성국가를 보란듯이 일떠세울것이다.

평양시 보통강구역 주민 김명순

침략세력에게 단호한 징벌을

미국과 남조선의 호전세력이 우리의 평화적호소와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각 《울지 프리덤 가디언》북침합동전쟁연습에 미쳐날뛰고있는 데 대해 치솟는 분노와 적개심을 금할수 없다. 내외호전세력이 《맞출형역제전략의 속달》이니 뭐니 하며 남조선도처에서 짙은 화약내를 풍기고있는것은 미친개의 본성그대로이다.

우리의 참용성도 이제는 한계점을 넘어섰다. 미친개는 몸통이로 때려잡아야 하듯이 우리의 정의의 위엄에 도전하는 침략자, 도발자들을 백두산총대

의 위력으로 단호히 추방시켜야 한다.

우리 인민군대와 마찬가지로 로동적위군도 만단의 전투동원태세를 갖추고 최후승리를 위한 명령만 내려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선군으로 억척같이 다져진 우리의 혁명무력은 침략자들이 감히 우리의 신성한 령도, 령해, 령공을 단 0.001mm라도 침범한다면 일격에 세도 없이 멸해버리고 세기를 이어오는 조미대결전에서 최후승리를 이룩할것이다.

로능적위군 지휘관 김영철



백두에서 한나까지 우리는 하나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지지하는 〈백두-한나〉 자동차행진》을 보고

조선인들의 로씨야에로의 이주 150년을 계기로 진행된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지지하는 〈백두-한나〉 자동차행진》이 온 겨레와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열렬한 지지와 뜨거운 호응 속에 성공적으로 끝났다.

국제고려인통일연합회 제1부위원장 김철성 로씨야고려인통일연합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로씨야-조선반도종단자동차행진단은 지난 7월 7일 로씨야의 수도 모스크바를 출발하여 8월 19일 조선반도의 남단에 있는 부산까지 약 1만 5 000km의 머나먼 로정을

자동차로 달려 자기들의 뜨거운 통일열정을 내외에 힘있게 표시하였다.

이번 자동차행진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열렬히 지지성원하는 재로씨야동포들의 뜨거운 마음을 잘 보여주었으며 온 겨레의 통일열기를 더욱 북돋아주는 뜻깊은 계기로 되었다.

들은 자기들의 심정을 격정에 넘쳐 토로하였다. 박 월련전 로씨야 연해변강고려인통일연합회 위원장은 《그렇게도 갈망해온 백두산에 오르기 정말 격동된 심정을 억제할수 없다. 백두산의 장엄함에 넋을 다 잃을 지경이다. 바로 이런 곳에서 항일대진을 벌리신 김일성주석님이시야말로 과거 하늘이 낸분이시고 장군님의 제일 으뜸의 장군이다.》라고 격정을 터치었다.

백두산지를 참관한 행진단성원들은 삼지연대기념비와 백두산 밀영고향집, 사평부귀들집 등을 돌아보면서 항일의 혈전민리를 헤쳐서 배웠던 나라를 찾아주시고 민족재생의 서광을 안아오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금치 못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탄생하신 백두산밀영고향집을 참관한 행진단 단장은 인적도 없는 천고밀림속의 이 수수한 토나무기둥들에서 김정일장군님께서 탄생하시었다고 생각하니 격정을 금할수 없다. 김정일장군님께서 이렇듯 탄생도 인민적이어서 생의 마지막순간에도 인민을 위한 열차에 계시었다. 이 성스러운 생가에서 고고니 장군님생각이 더욱 간절해진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계시었던 사평부귀들집과 사적물들을 보면서 주석님과 장군님의 위대한 혁명정신이 오늘도 살아있음을 깨우로 절감한다.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장군님은 우리 민족과 영원히 함께 계시신다고 자기의 뜨거운 진정을 토로하였다.

모든것이 갖추어져있는 송도원국 제소년단야영소를 돌아보면서 야영생들의 행복넘친 모습을 보며 감동을 금치 못하였다.

행진단성원 안향진은 최상의 조건을 갖춘 야영소에서 조국의 아이들뿐 아니라 여러 나라 학생소년들도 야영생활을 한다니 놀라기 그지없다. 이곳에서 학생소년들은 휴식만이 아니라 과학지식도 습득하고 몸단련도 하고있다. 야영생들이 정말 부럽다. 이렇게 완벽한 야영소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후대사랑을 그대로 이어가고계신다는 것을 깊이 느낄 수 있었다고 말하였다.

행진단은 명승지 삼일포와 세계의 명산 금강산을 돌아보며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내기도 하였다.

로자들이 산다고 하니 얼마나 민치 어려운 현실인가, 이번 조국방문을 한층 잊을수 없을 것 같다고 한 최 레오니드 우즈베끼스판고 러인협회 부회장, 문수물놀이장에서 저렇게 웃고 떠들며 휴식의 한때를 마음껏 보내고있는 행복넘친 인민들을 서방에서는 조선인민들이 굶주리며 가난하게 살아간다고 비평하고있다. 얼마나 어리석은것인가, 조선의 현실을 똑바로 알자면 누구나 여기에 와보아야 한다고 한 최명철 로씨야대원도 그런고로, 미국이 조선을 눈에서 가시처럼 여기는것은 인민들이 좋은 제도하에서 행복하게

에 떨쳐나와 《조국통일!》을 웨치던 공화국의 남부 로스들을. 분계연선도시 개성에 도착하여 여러곳을 돌아보고 위대한 대원수님의 불멸의 통일철필비가 솟아있는 관문점도 참관한 행진단성원들은 철세위인들의 통일애국의 뜻과 유혼을 받들어 민족의 통일을 위한 애국사업에 더욱 분투할 마음속결의들도 다지였다.

16일 그들은 자동차를 타고 분계선을 넘어 서울로 향하였다. 그 때로부터 남조선의 여러 도시들을 돌며 19일 부산에 이르기까지 통일열안고 자동차를 달린 행진단성원들의 가슴가슴은 민족통일사업에 특색있는 하나의 기여를 하였다. 남다른 긍지로 부풀었게 나아가며 최후승리를 앞당겨오고있는 공화국의 위업의 정당성과 밝은 미래에 대한 뚜렷한 확증이다.

이제 꿈인가. 조국에 큰절을

이번에 온 겨레와 세인의 관심을 집중시키며 로씨야-조선반도종단자동차행진이 성과적으로 진행될수 있는것은 민족의 통일을 위해 적은 힘이나마 이바지하고자 하는 해외동포들의 소원과 통일애국의지를 귀중히 여기고 적극 내세워준 공화국정부의 세심한 관심과 동포애적조치가 있었기때문이다. 공화국정부에서는 해외동포들의 발가와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그들이 자동차로 공화국의 경내를 경유할수 있도록 허락해주었으며 방문과 자동차행진의 나날 행진단성원들이 자그마한 불편과 어려움도 없도록 모든 조건을 보장해 주었다. 행사기간 도처에서 각계층 인민들이 연도에 펼쳐나서 자동차행진을 뜨겁게 환영하고 배려준것도 행진단성원들을 크게 고무해 주었다.

이번에 온 겨레와 세인의 관심을 집중시키며 로씨야-조선반도종단자동차행진이 성과적으로 진행될수 있는것은 민족의 통일을 위해 적은 힘이나마 이바지하고자 하는 해외동포들의 소원과 통일애국의지를 귀중히 여기고 적극 내세워준 공화국정부의 세심한 관심과 동포애적조치가 있었기때문이다. 공화국정부에서는 해외동포들의 발가와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그들이 자동차로 공화국의 경내를 경유할수 있도록 허락해주었으며 방문과 자동차행진의 나날 행진단성원들이 자그마한 불편과 어려움도 없도록 모든 조건을 보장해 주었다. 행사기간 도처에서 각계층 인민들이 연도에 펼쳐나서 자동차행진을 뜨겁게 환영하고 배려준것도 행진단성원들을 크게 고무해 주었다.

행진단의 다른 한 성원은 《이번에 김정은 원수님께서 우리 동포들이 조국땅을 다시 밟을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고맙다.》고 하였으며 다른 한 성원은 《이제 꿈인가 생인가. 우리가 정말 조국땅에 들어섰건가. 오래전부터 꾸어오던 꿈이 오늘에야 비로소 실현되었다. 자동차행진단 전체 성원들을 대표하여 자동차행진이 성과적으로 진행될수 있게 하여준 조국에 큰절을 드린다.》라고 말하였다.

기묘한 봉우리들과 깎아지른듯한 절벽, 장쾌하고 웅장한 폭포, 수려한 숲을 자랑하는 금강산의 독특한 절경경관을 한껏 부감하면서 그들은 조선민족된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다시금 절감하였다.

행진단 단장 김철성은 금강산의 경치가 참으로 장관이라고 하면서 여기에 와가지 못하면 일생 후회할것이다. 북과 남, 해외 온 겨레가 금강산정치를 마음껏 부감할수 있는 통일의 날이 반드시 오리라는것을 확신한다고 말하였다.

통 일 , 통 일

이번 자동차행진의 전과정을 지켜보면서 북과 남의 겨레가 커다란 감동을 받은것은 조국통일에 대한 해외동포들의 열망이 얼마나 높고 뜨거우나 하는것이다.

몸은 비록 해외에 있어도 민족의 넋을 잃지 않고 조선반도의 통일을 위해 애국의 마음과 숨은 노력을 바쳐가고있는 로씨야고려인 통일연합회를 비롯한 해외동포단체들과 해외동포들이다.

지금까지 조선반도를 돌로 가른 분열장벽에 파렬구를 내기 위해 한몸의 위험을 무릅쓰고 군사분계선을 넘어간 남녘의 인사들은 있었다. 그러나 자동차행진으로, 그것도 민족의 통일열망이 더욱 높아오르는 8.15를 계기로 북과 남을 자동차로 종단한 실례는 없었다.

그 뜻깊은 조선반도종단자동차행진의 첫 포를 이번 로씨야에 살고있는 동포들이 끊었다.

사실 로씨야-조선반도종단자동차행진을 결심하고 그것을 실현치에 옮긴 전과정은 결코 수월한 과정이 아니었다. 모스크바를 출발하여 까자흐스탄, 우즈베끼스판 등 여러 나라들을 거쳐 조선반도도 그 멋진 집들에서 평범한 근

5 000여km에 달하는 머나먼 로정을 저서는 살수 없고 하나로 합쳐야만 하는 조선민족의 통일의지를 만방에 파시하며 민족의 통일운동사에 또 하나의 특색있는 한페이지를 수록한 자랑스러운 미지였다.

내외의 반통일세력들이 북침행진연습과 같은 무모한 불장난으로 조선반도의 정세를 전쟁경계로 몰아가면서 조선반도의 분열을 영원한것으로 만들려고 아서 우리 모지들을 쓰며 발악해도 우리 민족의 뜨거운 통일열정은 절대로 막을수도 꺾을수도 없다.

오늘은 비록 로씨야에서 수십명의 동포들이 자동차를 타고 달려와 분열의 장벽을 넘어섰지만 조국해방 70년이자 조국분열 70년이 되는 해년에는 저기 남아메리카주에서, 유럽에서 아니 지구의 곳곳에서 해외동포들이 저마다 달려와 분열의 장벽을 헤치는 과감한 통일애국행진을 벌리게 될것이라.

북, 남, 해외의 겨레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버리는 조국통일운동의 최후승리는 결코 머지않은 미래에 있다.

백두에서 한나까지 우리 조선민족은 하나이다.

강대하고 아름다운 나라

8일 열차로 국경을 넘어 두만강역에 도착한 자동차행진단성원들은 라선시, 청진시, 백두산, 원산시, 금강산, 평양시를 비롯한 로정을 따라 차를 달리면서 강성국가로 건설하고있는 공화국의 벽천 현실과 인민들의 행복넘친 모습, 아름다운 산천경관을 보며 깊은 감동을 금치 못하였다.

10일 그들은 백두산정에서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지지하는 〈백두-한나〉 자동차행진》 출정식을 가졌다.

민족의 넋이 뿌리내리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항일열전의 발자취가 어리어있는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서 출정식을 가진 무한한 긍지와 기쁨속에 그



민족분열의 역사를 끝장내고 평화통일을 이룩하자

서울에서 8.15범국민집회, 8.15로동자집회 진행

남조선인터넷신문 《통일뉴스》에 의하면 남조선의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와 《광복69주년 8.15자주통일대회 추진위원회》의 공동주최로 15일 서울역광장에서 일본의 《집단지위권》반대, 조선반도평화통일을 위한 8.15범국민집회가 진행되었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조국해방의 날을 맞이한 우리들의 꿈은 바로 평화통일이라고 말하였다.

민족분열의 역사를 끝장내

고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남북공동선언들을 성실히 리행하여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그들은 각계 민중이 르대를 강화하여 평화통일을 위해 힘차게 투쟁해나가자고 호소하였다.

집회에서는 호소문이 랑독되었다.

미국과 남조선의 《올지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철폐과 일본의 《집단지위권》행사, 야스쿠니신자참배 등 군국주의부활책들은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규탄하였다.

《정부》는 북을 겨냥한 미국과의 모든 전쟁연습을 중지하고 《5.24조치》를 해제하며 평화와 협력의 길을 열어나가야 한다고 호소문은 강조하였다.

집회가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서울역광장에서부터 서울시청앞광장까지 시위행진하였다.

* * *
남조선인터넷신문 《자주민보》에 의하면 조국해방

69들을 맞으며 남조선의 민주로총이 15일 서울역광장에서 8.15로동자집회를 가졌다.

집회에서 민주로총 위원장 신승철은 지금 이 땅에서는 사대세력이 로동자민중을 억압하며 집권행세를 하고있다고 개탄하였다.

조선반도평화를 위협하는 남조선미국합동군사연습은 남조선, 미국, 일본합동군사연습으로 강화되었다고 비난하였다.

《정부》의 기만적인 정책에 의해 아직도 수백명을 바

다에 수장시킨 참사의 진상이 밝혀지지 않고있으며 민주로총 핵심성원들이 《보안법》의 울가미에 걸려 탄압당하고있다고 단죄하였다.

그는 로동자들이 힘을 합쳐 조선반도의 평화통일을 실현할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이어 결의문이 랑독되었다.

결의문은 《정부》의 반통일정책을 분쇄하고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끝까지 리행해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본사기자 서 희

전쟁연습은 북남관계개선의 기본장애물

지금 남조선에서는 지난 18일부터 시작된 《울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이 최절정을 이루고있다. 수만명의 미군과 방대한 첨단 핵전쟁장비들이 남조선에 쏟아져 들어오고 미국 국방부 부장관이 이른바 《맞춤형억제전력》이라는 것을 현지에서 확인하기 위해 비밀리에 남조선에 기여하였다. 한편으로 청와대 지휘실에서는 《울지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열리고 여기에서 호전적발언들이 튀어나오거나 하면 남조선의 전지역에서 주민들까지 동원하는 《민방공대피훈련》이 벌어지고있다.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의 불안장소등으로 말미암아 남조선에서는 핵전쟁의 검은구름이 시시각각으로 밀려오고있다.

전쟁소통과 관계개선을 위한 북남대화는 량립될수 없다.

올해초에 공화국의 성의있

는 노력에 의하여 북남구위급접촉이 열리고 여러해만에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이 진행되는데는 남조선당국은 심각한 장애를 필요로 한다. 이렇게 된다면 남조선당국이 미국과 야합하여 벌린 《키 리 롭브》, 《독서리》 합동군사연습이 중요한 원인이었다.

올해초 북남적십자실무접촉이 진행되고있을 때 미국의 핵전략목격기가 조선전해상공에 날아들어 핵폭탄두하 훈련을 벌리었다는가 하면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이 진행되던 시각에도 남조선의 하늘과 땅, 바다에서는 북침을 노린 전쟁연습이 광란적으로 벌어져 겨례의 분노를 자아냈다.

남조선당국은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를 마련하기 위해 대규모 북침합동군사연습을

그만둘때 대한 동족의 거듭되는 요구에도 아랑곳없이 《울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을 끝낼때 강행함으로써 저들의 반통일자세를 여실히 드러내놓았다.

지금과 같이 조선반도의 전쟁위험이 날로 증대되는 속에서 해결해야 할 조미의 문제는 남조선당국이 《년례적》이니, 《방어적》이니 하는 간판을 들고 미국과 벌리는 북침전쟁연습을 중지하는것이다. 상대방을 무력으로 치겠다고 하면서 상대와 신뢰의 어떻게 쌓겠다는 것인가.

남조선당국은 말로는 《대화》, 《통일》이니 하면서도 행동은 정반대로 하고 있다. 북남관계의 위기가 좀처럼 해소되지 못하고있는것이 우연한것이 아니다.

오죽하면 남조선의 각계층속에서 《울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에는 《작전계획

5027》을 기반으로 《평양점령》, 《신체라적, 국지전이 벌어지는 경우 미군태평양사령부소속 전력기 개입해서 대응하는 계획까지 포함되어 있다》, 《말로는 《통일대박》을 웨치고있는 《정부》가 실제로는 군사훈련에 혈안이 돼있다》,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평화를 실현해야 할 때》이라는 분노와 규탄의 목소리들이 울려나오고있었다.

결론은 명백하다. 남조선당국이 외세와 야합한 북침전쟁연습을 전면중단하지 않고서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북남관계개선을 기대할수 없다라는것이다.

남조선당국이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외세와 함께 동족을 반대하여 벌리는 위험천만한 합동군사연습을 당장 중지하여야 한다.

본사기자 김철민

우리 겨례에게는 온 민족의 총의가 반영되고 내외의 지지환영을 받았으며 실천에서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과시된 훌륭한 통일원칙과 북남합의들이 있다. 7.4공통성명에서 북과 남이 합의한 조국통일3대원칙, 북남수뇌들이 합의공표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높이 6.15통일시대에 북남당국과 민간, 경제계, 종교계 등 각이한 계층들사이의 대화와 공동행사를 통해 마련된 합의들과 그 실천과정에 리득한 귀중한 성과와 경험들이 바로 그것이다.

오늘날 북남관계가 최악의 국면에 처하고 통일문제해결에서 돌파구가 열리지 못하고있는것은 바로 이러한 북남합의들이 제대로 리행되지 못하고있기 때문이다.

현 남조선당국은 집권한후 지난 시기의 북남합의들을 리행하려는 노력은 하지않고 그 무엇을 자꾸 꺼내들고 북남관계개선에 복잡장난조성하고있다.

그들이 비무장지대안에 《세계평화공원》을 꾸리라고 하는것이나 《인도적문제해결》, 《민생인프라구축》, 《주민간통실질적회복》과 같은 제안들, 며칠전 《8.15경축사》에서 언급한 《환경협력의 통로》, 《민생의 통로》, 《문화의 통로》 구축과 같은 문제들은 북남관계의 본질적문제해결에는 도움이 되지않는 부차적인 문제들이다.

여 북남당국이 마주앉아 다시 협력의 틀을 짜느라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될것이며 당장이라도 화해와 단합, 통일의 넓은 길을 열어 나갈수 있다.

남조선당국이 주장하는 인도주의적사업이나 철도도로 연결, 사회협력사업들도 사실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다 반영되어있는 문제로서 선언들이 리행되면 원

할것도 없이 이미 북남이 마음놓고 평화롭게 관광을 즐기던 이런 곳을 다시 되살리면 그만일것이다.

하기에 금강산기업인협의회를 비롯한 남조선의 경제계와 사회계의 단체들, 각계층 인민들은 《남북경협교류의 시작이었고 남북평화의 상징인 금강산관광을 재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북과 남의 수뇌들이 채택한 민족공동의 귀중한 합의문건들마저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백지화되고 당리당략의 희생물로 약용된다면 당국사이의 합의를 열백번한들 계속 진통과 대결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다.

남조선당국이 진실로 통일에 관심이 있고 북남관계를 개선할 의사가 있다면 이미 리룩된 북남합의들부터 인정하고 존중하며 리행하는 실천적조치를 취해야 할것이다.

곽창호

이미 이룩된 합의행이 기본

역사적인 7.4공통성명과 6.15공동선언, 10.4선언에는 북과 남이 관계개선을 도모하고 조국통일을 이룩하는데서 일관하게 견지해야 할 원칙과 정치, 경제, 문화, 인민들의 등 모든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전면적으로 확대발전시켜나가기 위한 가장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방도들이 다 들어있다.

6.15시대에 활성화되어온 각 분야별, 분과별 협력교류기구들이 재가동된다면 구래

만히 해결될수 있을것이다.

대표적으로 비무장지대안에 《세계평화공원》을 꾸리라고 하는 문제만 놓고보아도 그렇다. 이미 북남이 합의한 10.4선언에는 서해평화협약의 등 모든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전면적으로 확대발전시켜나가기 위한 가장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방도들이 다 들어있다.

6.15시대에 활성화되어온 각 분야별, 분과별 협력교류기구들이 재가동된다면 구래

대표적으로 비무장지대안에 《세계평화공원》을 꾸리라고 하는 문제만 놓고보아도 그렇다. 이미 북남이 합의한 10.4선언에는 서해평화협약의 등 모든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전면적으로 확대발전시켜나가기 위한 가장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방도들이 다 들어있다.

6.15시대에 활성화되어온 각 분야별, 분과별 협력교류기구들이 재가동된다면 구래

궁극적파산으로 이어질 《전략적인내》

미군이 우리 겨례에 사는 남남민에게 침략의 군화발을 들이던지도 어느덧 69년이 되어온다. 불청객이 남의 집에 들어와 그것도 하루이상일 정도로 아니라 반세기이상이나 들고앉아있었다는것은 전쟁은 도대체 편안할수가 없다. 강도가 그 모양이라면 더 말할나위가 없다.

남조선강점 미군이 바로 그 럼치었고 뻔뻔스러운 꼴이다.

그럼에도 집주인을 지켜준다고 거짓말을 해대며 나날을 앓아먹고있다. 짝하면 주먹질

도에서 전쟁을 몰아오는 화군이다. 수만명의 미군이 항시적으로 통치를 하고있고 핵무기를 비롯한 술한 전쟁장비들을 해마다 끌어들이고 화학야전물은 전쟁연습소등을 벌리나케 벌리놓고있는것으로 하여 조선반도에는 언제한번 평화가 깃들지 못하였으면 전쟁위험은 날로 높아가고있다.

미군이 올해에도 남조선에 들어들인 전략핵폭격기, 핵함공포함, 핵잠수함들의 타격능력은 선량한 우리 조선

69년전 분렬시작의 그날로 돌아간다면 이 땅에 38°선표발을 박은것은 미군임을 잘 알수 있다.

미군은 남조선을 군사적으로 무한정 타고앉아 오늘까지도 북남관계개선과 우리민족의 통일을 한사코 방해하고있다.

미군이 쓰아대는 전쟁총포성태문에 이해에 모처럼 조성되려고 했던 북남관계개선은 싹도 튀워보지 못하고 사라졌듯이 조선반도와 우리 겨례는 새로운 랑전의 희생물이 될 위험까지 떠안고 있다.

그 미군이 나간다면 전쟁의 주되는 위험이 사라지게 되고 우리 겨례는 마음놓고 평화의 동산을 꾸려갈것이다.

남조선에서 미군이 없어지는 그날은 우리 겨례가 하나가 되어 통일번영의 꿈을 현실로 이루어놓을 환희의 날일것이다.

력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

지금 미국은 내외의 비난과 규탄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의 군부호전세력과 함께 조선반도의 남쪽에서 《울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을 벌리고있다.

문제는 미국이 이번 연습기간에 그 누구의 《핵, 미사일사용용주》가 포착되면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무력을 동원하여 선제타격을 가한다는 《맞춤형억제전략》을 처음으로 적용하고 있는것이다.

미국이 남조선의 호전세력들과 함께 《평양점령》을 노린 최대규모의 련합상륙훈련으로 북의 의적인 《군사분계선돌파》훈련, 《북침령후 행정단위복구》훈련, 공화국의 수뇌부를 노린 특수작전훈련 등 선제공격적인 군사연습들을 이어달리기식으로 벌리왔다는것은 이미 공개된 사실이다.

이른바 《북공포》를 전제로 한 북침전쟁연습들이 이어 핵선제공격을 공식화한 《맞춤형억제전략》까지 공군에 실제에 적용하는것은 공화국에 대한 또 한차례의 핵위협공갈이고 도발이다.

그 위험한 전쟁책동의 밑바탕에는 현 미행정부의 대조선침략정책인 《전략적인내》가 깔려있다.

미국의 《전략적인내》 정책은 공화국이 저들에게 굶어지고 무너질 때까지 기다

리겠다는 정책이고 그것도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는것이 아니라 군사적으로 압박하고 경제적으로 봉쇄하고 내부로부터 와해시키는 등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붕괴》시기를 앞당기겠다는것이다.

이것을 위해 미국은 《정례적》, 《년례적》이라는 상투적인 기만으로 세계여론을 오도하면서 3대핵력대국단까지 동원되는 각종 전쟁연습과 군사적도발로 공화국을 대한 핵위협공갈의 도수를 단계적으로 높여왔다.

또 《인권》, 《인도주의》와 같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약용하여 공화국을 헐뜯어 국제적고립을 강화하고 경제제 《제재》, 《봉쇄》와 미국식문화의 침투를 통해 공화국인민들이 스스로 주저앉도록 꾀하고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적인내》정책의 성공이 과연 가능할것인가.

우리 공화국이 창건된 이래 미국의 력대 행정부들이 조선에 눈을 든 가지처럼 여기면서 압살의 광기를 부리왔다.

그러나 그것이 어느 정도라도 성공한 집권자는 없다. 지난 세기 90년대의 미국의 반공화국핵소동때에도 마찬가지였다.

1993년 미국의 핵사찰소동

으로 조선반도에는 전쟁이라는 먹구름이 밀려들었다.

하지만 공화국은 미국의 특목사찰요를 단호히 거부하고 전국, 전민, 전군이 준전시상태로 넘어갈때 대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명령을 하달하였으며 핵무기전파방지구약의 탈퇴를 선언하였다.

이 핵대결전에서 피리를 사린것은 다름아닌 미국이었다.

1994년 공화국의 대국상을 기화로 미국은 《3, 3, 3포기》를 요란히 떠들었으나 공화국은 선군정치라는 세계에 없는 새로운 정치방식을 펼쳐 정치군사강국으로 부상하였다.

이후에도 미국은 공화국을 《악의 축》이니, 《불량국가》이니 하는 혐구를 쇄위하고 제국주의세력을 련합하여 정치경제적인 고립압박과 군사적압살의 강도를 해마다 높여왔다.

고립, 제재, 압박, 이것은 미국의 력대 행정부들이 수십년동안 갖은 수단과 방법, 지어 인류의 최대의 재앙인 핵무기까지 휘두르며 공화국을 어찌보려고 새먹어온 것이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성구도 있지만 미국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이 강화될수록 공화국군대와 인민의 반미적개성은 반미대결정의를 더욱더 굳건히 하였다.

하지만 아무리 수만을 뒹겨

도 계산해볼수 없고 짐작할수 없는것이 공화국이다.

무력으로 핵보자고 하면 《핵에는 핵, 전쟁에는 전쟁으로》대답하고 폭과 강도를 높이며 《제재》를 가해도 약동하는 젊음으로 강성국가를 건설해나가는 공화국이다.

세계정치무대에 미국에 맞서는것도 자주적인 공화국이다.

미국으로서는 호미남방이고 조막손으로 닭알만지는 꼴이 되었다.

저들의 정치적무능과 미숙함을 가리우자니 《전략적인내》라는 너울을 계속 쓰고있어야 하였다.

《전략적인내》정책의 가장 큰 실패는 공화국을 계속 압박하고 제해하러던 언젠가는 《붕괴》될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와 미련이다.

시간은 공화국과 미국에 다같이 차려지지만 그 종착점은 하늘땅차이가 된다는것을 깨닫지 못하는 미국이다.

지금 미국은 《북은 지구상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잔인한 국가》라고 떠벌이면서 《인권》문제를 전면에 내걸기도 하고 언론수단을 동원하여 《북공포사태설》을 내돌리기도 한다.

천 세의 케토트란스피탈은 미국의 헛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도 이제는 없다. 세계의 많은 나라 사람들이 기쁨같이 공화국을 방문하고있으며 밝고 아름답고 날로 젊어지고 약동하는 공

화국의 현실에 감탄을 금치 못한다.

하루강아지 가 달을 보고 짓는다고 해서 달빛이 호리처럼 것이 아니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울수는 없는 법이다.

미국이 핵함공포함, 핵잠수함, 전략핵폭격기를 동원하여 핵위협공갈의 도수를 높일수록 공화국은 더욱 정밀화되고 다종화된 자위적무장력을 계속 강화해나간다.

목표의 한계가 없고 타격이 무자비한 공화국의 자위적무장력은 누가 강자이고 누가 약자인가를 똑똑히 보여주게 될것이다.

력사는 반복되고 전통은 이어진다고 한다.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도발의 력사는 계속되고 그속에서 공화국의 승리의 전통, 미국의 패배의 전통은 이어진다.

《전략적인내》, 과연 백년을 가겠는가, 천년을 가겠는가.

현 미국행정부의 집권이 과연 몇년 가겠는가.

《전략적인내》에 매달리면서 《맞춤형억제전략》과 같은 무모한 핵불장난을 하는 미국의 선택이 어떤 비참한 종말을 가져다주리라는것은 명백하다.

공화국의 자위적무장력은 엄숙히 신고하였다.

승자와 참혹한 패자를 가르는 운명적인 선택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가.

미국이 《전략적인내》에 계속 매달린다면 궁극에는 파멸만이 차레질것이다.

본사기자 김정혁

미군이 없는 그날은...

미군이 없으면 민족을 몇번도 더 핵침화에 몰아넣을수 있는 재난당어리이다.

《핵을 머리에 이고 살수 없다》고 했는데 겨례의 머리에 우에 장장 60여년동안이나 언제 폭발할지 모를 핵탄을 항시적으로 띄워놓고있는것이 미국이고 그의 침략군대이다.

그 미군이 나간다면 전쟁의 주되는 위험이 사라지게 되고 우리 겨례는 마음놓고 평화의 동산을 꾸려갈것이다.

남조선에서 미군이 없어지는 그날은 우리 겨례가 하나가 되어 통일번영의 꿈을 현실로 이루어놓을 환희의 날일것이다.

력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

그 미군이 없으면 민족을 몇번도 더 핵침화에 몰아넣을수 있는 재난당어리이다.

《핵을 머리에 이고 살수 없다》고 했는데 겨례의 머리에 우에 장장 60여년동안이나 언제 폭발할지 모를 핵탄을 항시적으로 띄워놓고있는것이 미국이고 그의 침략군대이다.

그 미군이 나간다면 전쟁의 주되는 위험이 사라지게 되고 우리 겨례는 마음놓고 평화의 동산을 꾸려갈것이다.

남조선에서 미군이 없어지는 그날은 우리 겨례가 하나가 되어 통일번영의 꿈을 현실로 이루어놓을 환희의 날일것이다.

력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

그 미군이 없으면 민족을 몇번도 더 핵침화에 몰아넣을수 있는 재난당어리이다.

《핵을 머리에 이고 살수 없다》고 했는데 겨례의 머리에 우에 장장 60여년동안이나 언제 폭발할지 모를 핵탄을 항시적으로 띄워놓고있는것이 미국이고 그의 침략군대이다.

그 미군이 나간다면 전쟁의 주되는 위험이 사라지게 되고 우리 겨례는 마음놓고 평화의 동산을 꾸려갈것이다.

남조선에서 미군이 없어지는 그날은 우리 겨례가 하나가 되어 통일번영의 꿈을 현실로 이루어놓을 환희의 날일것이다.

력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

그 미군이 없으면 민족을 몇번도 더 핵침화에 몰아넣을수 있는 재난당어리이다.

《핵을 머리에 이고 살수 없다》고 했는데 겨례의 머리에 우에 장장 60여년동안이나 언제 폭발할지 모를 핵탄을 항시적으로 띄워놓고있는것이 미국이고 그의 침략군대이다.

그 미군이 나간다면 전쟁의 주되는 위험이 사라지게 되고 우리 겨례는 마음놓고 평화의 동산을 꾸려갈것이다.

남조선에서 미군이 없어지는 그날은 우리 겨례가 하나가 되어 통일번영의 꿈을 현실로 이루어놓을 환희의 날일것이다.

력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

그 미군이 없으면 민족을 몇번도 더 핵침화에 몰아넣을수 있는 재난당어리이다.

《핵을 머리에 이고 살수 없다》고 했는데 겨례의 머리에 우에 장장 60여년동안이나 언제 폭발할지 모를 핵탄을 항시적으로 띄워놓고있는것이 미국이고 그의 침략군대이다.

그 미군이 나간다면 전쟁의 주되는 위험이 사라지게 되고 우리 겨례는 마음놓고 평화의 동산을 꾸려갈것이다.

남조선에서 미군이 없어지는 그날은 우리 겨례가 하나가 되어 통일번영의 꿈을 현실로 이루어놓을 환희의 날일것이다.

력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

그 미군이 없으면 민족을 몇번도 더 핵침화에 몰아넣을수 있는 재난당어리이다.

《핵을 머리에 이고 살수 없다》고 했는데 겨례의 머리에 우에 장장 60여년동안이나 언제 폭발할지 모를 핵탄을 항시적으로 띄워놓고있는것이 미국이고 그의 침략군대이다.

그 미군이 나간다면 전쟁의 주되는 위험이 사라지게 되고 우리 겨례는 마음놓고 평화의 동산을 꾸려갈것이다.

남조선에서 미군이 없어지는 그날은 우리 겨례가 하나가 되어 통일번영의 꿈을 현실로 이루어놓을 환희의 날일것이다.

력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

그 미군이 없으면 민족을 몇번도 더 핵침화에 몰아넣을수 있는 재난당어리이다.

《핵을 머리에 이고 살수 없다》고 했는데 겨례의 머리에 우에 장장 60여년동안이나 언제 폭발할지 모를 핵탄을 항시적으로 띄워놓고있는것이 미국이고 그의 침략군대이다.

그 미군이 나간다면 전쟁의 주되는 위험이 사라지게 되고 우리 겨례는 마음놓고 평화의 동산을 꾸려갈것이다.

남조선에서 미군이 없어지는 그날은 우리 겨례가 하나가 되어 통일번영의 꿈을 현실로 이루어놓을 환희의 날일것이다.

력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

한세기이상 쓰고있는 식민주의(3)

《조약》과 《협정》으로 본 남조선미국관계

자주적인 독립국가의 체도는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이나 협정을 통해서도 표현된다.

자주적인 주권국가라든 다른 나라와 조약과 협정을 맺을 때 자주성의 원칙, 내정불간섭과 평등과 호혜, 침략금지과 평화수호 등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런데 남조선 《정권》은 이러한 원칙들이 완전히 무시된 《조약》과 《협정》을 맺고있는것으로 하여 식민지예속 《정권》으로 락인되고 있다.

남조선당국이 미국과 체결한 《호상방위조약》은 그러한 《조약》의 대표적인것으로 되고있다.

《호상방위조약》은 미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내와 그 주변에 배치하는 권리》를 남조선당국이 《허용》하고 미국은 이를 《수락》(제

4조)하며 《이 조약은 무기한 유효하다》.(제6조)고 규정하고있다.

말그대로 이 《조약》은 남조선전역에 대한 미군의 무기한 군사적강점을 합법화해주고있다.

미국은 이 《조약》을 구실로 남조선에서 인민들의 삶과 터전을 군사기지로 빼앗고 군사적침략목적에 마음대로 사용하고있다.

뿐만아니라 미국은 이 조약을 통해 남조선의 실제적인 통치권을 틀어쥐고 군사뿐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외교 등 사회전반에 대한 지배를 강화해왔다.

제2차 세계대전후 미국이 다른 나라, 지역들에 강요한 《군사조약》 가운데서 남조선미국 《호상방위조약》만큼 명토 무상으로 무기한 강점하는것을 규정한 침략적이며 불평등한 《조약》은 없다.

남조선미국 《호상방위조약》이야말로 남조선에 대

한 미국의 군사적강점의 상징이고 식민지 지배의 명이며 민족적불행과 치욕의 대명사이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체결한 《행정협정》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행정협정》은 남조선강점 미군의 치외법권을 합법화해준 강도적인 《협정》이다.

실제로 이 《협정》에는 《공무집행중》에 저지른 미군의 범죄에 대한 《제1차적 재판권》을 미군당국이 행사하며 《공무중》인가 아닌가를 하는 《판결권》도 미군이 가진다고 규정하고있다.

또 미군범죄자에 대한 《구금》과 《구금시설》에 대한 규정도 미군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되어있으며 미군이 입힌 재산피해와 관련한 《민사청구권》도 미국이 일방적으로 규정하여 처리하게 되어있다.

이러한 강도적인 《협정》의 보호아래 미군은 남조선

에서 온갖 범죄와 만행을 저지르지 않고 감행하여왔으며 그로부터 초래되는 남조선인민들의 불행과 고통은 참으로 크다. 10여년전 길가던 남조선의 나어린 두녀학생을 장군차로 무참히 깔아죽인 미군살인범들이 《무죄》선고를 받고 본국으로 뺄소니쳐 남조선인민들의 반미감정을 촉발시켰던것도 이런 치욕의 《협정》이 있어서이다.

남조선인민들이 제2의 《울시5조약》으로 락인하는 남조선미국 《자유무역협정》도 마찬가지이다.

이 《협정》에는 남조선에만 일방적인 피해를 주는 불평등조항이 무려 55개에 달한다고 한다.

자동차분야만 보아도 미국은 4년동안 저들에게 수출되는 남조선의 자동차들에 대해 현재의 관세를 계속 적용하도록 하였을뿐아니라 4년후 관세가 철폐된 뒤에도 저들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남조선자동차의 대미수출을 제지시킬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미국은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는 즉시 남조선으로 들어가는 미국산 자동차에 부과되고있는 관세를 절반으로 삭감하도록 하였을뿐아니라 그 대수도 본래의 6.5배에서 2만 5,000배로 대폭 늘여놓고 환경기준도 현저히 완화시켜놓았다.

이것만 보아도 남조선미국 《자유무역협정》이라는것이 자유무역의 간판밑에 자국기업들을 보호하고 살찌우며 남조선에 경제적으로 더 깊숙이 침투하려는 미국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반영하여 체결된것이라는것을 알수 있게 한다.

오죽하면 남조선 각계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의 체결로 남조선경제는 미국에게 마음대로 주물러도 하소연할데가 없는 말라와 같은 처지에 빠졌다고 비판을 표시하였는가.

이처럼 세상에 가장 불평등하고 예속적인 내용으로 일관된 《조약》과 《협정》을 통해서도 남조선의 대미예속성을 똑똑히 알수 있다.

본사기자 주광일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체결한 공화국을 겨냥한 침략적인 《울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고는 그를 정당화하고 진속을 감추기 위해 무언을 쓰고있다.

다. 그 무슨 《년례적》이니, 《방어적》이니 하고 떠들었는것이 그것이다.

이번 합동군사연습은 철두철미 북침핵선제공격연습으로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우리 민족과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한결같은 지향과 우려에도 도전하는 용납 못할 도발행위이다.

지금 이 시각 남조선의 하늘과 땅, 바다에서 화학내를 풍기며 광란적으로 벌어지고있는 《울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에는 유사시 조선전쟁에 투입할 미군부대의 거의 모든 지휘소들과 남조선북해공군의 련대급이상 지휘기관들, 남조선의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들과 군수, 민간업체들까지 총동원되고있으며 핵타격수단들을 포함한 여러가지 살인장비들이 투입되고있다.

이번 합동군사연습은 사상 처음으로 북침핵선제공격을 공식화한 《맞춤형억제전략》이 정식 적용되는것으로 하여 더우기나 위험천만하다.

《맞춤형억제전략》은 북이 핵을 사용할 경우후보도 선제타격하겠다는것이 골자이다. 하지만 북의 핵사용후는 객관적근거에 의한것

이 아니라 《한》미당국의 지휘기관에 따라서 결정되는것이기때문에 임의의 시각에 공화국에 대한 핵선제공격이 이루어질수 있다》고 평하고있다.

이것만 놓고보아도 이번 합동군사연습의 성격과 위험성을 너무나 잘 알수 있다.

그런데도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그 무슨 《년례적》이니, 《방어적》이니 하는것은 황당한 껌변이고 여론에 대한 참을수 없는 기만이다.

공화국에 대한 선제타격을 노린 합동전쟁연습은 절대로 《방어적》일수 없으며 《년례적》, 《정례화》를 떠드는것은 전쟁연습을 무한히 지속시켜 이 땅에서 거이 전쟁의 불을 지르겠다는 광고에 다른것이 아니다.

침략적인 외세와 야합하여 《울지 프리덤 가디언》과 같은 침략전쟁연습을 강행함으로써 남조선당국은 벼속까지 친미이고 동족과는 대결하고 전쟁하려는 못된 심보들을 만천하에 드러내고있다.

오늘날 조선반도의 정세는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벌리

고있는 북침핵전쟁연습소동으로 하여 또다시 위기일발의 협박한 전쟁상황으로 치닫되고있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북침전쟁연습의 위험한 불장난속에 무모하게도 《맞춤형억제전략》을 실제에 적용하는것은 그들자신의 멸망의 길을 재촉하는것으로 될것이며 남조선당국이 제 몸건사도 하기 힘든 미국에 무력도 추종해다가는 어리석은 대포박, 총알방의 신세를 면할수 없다.

선제타격권은 결코 그 누구의 독점물이 아니다. 공화국의 정의의 무력은 임의의 시각에 침략세력에 무자비한 정벌의 불소나기를 쓸수 있는 만단의 준비가 되어있다.

공화국의 선의와 아량이 담긴 모든 평화적발기와 제안에 극도로 위험한 전쟁연습으로 대담하리니선 적대세력의 망명은 우리 겨례와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저주와 규탄을 면치 못할것이며 반드시 참혹한 대가를 치르게 될것이다.

김명희

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것이다

서울에서 특별법제정을 위한 투쟁에 각계층 군중 3만여명 참가

한 범국민집회를 가지었다. 참가자들은 《특별법을 제정하라》, 《〈대통령〉은 약속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외쳤다.

집회에서는 발언들이 있었다.

《세월》호사고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가족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현 집권자가 《세월》호의 진상을 밝힐 대신 경제살리기를 운운

하고있다고 비난하였다.

이것은 국민들의 생명을 돈과 바꾸겠다는것과 같다고 하면서 그는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것이라고 강조하였다.

30일일제 단식투쟁을 벌리고있는 한 유가족은 리운보단 인간의 생명을 위해야 한다고 하면서 참사를 일으킨 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안

마련을 요구하여 무기한 단식투쟁을 이어갈것이라고 말하였다.

추진교정의 구원전국사제단 소속 신부는 우리는 유가족들이 원하는 진실을 밝혀낼 특별법제정을 주장한다고 언명하였다.

《세월》호참사 범국민대책회의 공동위원장은 《정부》는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권과 기소권이 갖추어진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한 범국민집회를 가지었다. 참가자들은 《특별법을 제정하라》, 《〈대통령〉은 약속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외쳤다.

집회에서는 발언들이 있었다.

《세월》호사고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가족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현 집권자가 《세월》호의 진상을 밝힐 대신 경제살리기를 운운

한 범국민집회를 가지었다. 참가자들은 《특별법을 제정하라》, 《〈대통령〉은 약속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외쳤다.

집회에서는 발언들이 있었다.

《세월》호사고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가족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현 집권자가 《세월》호의 진상을 밝힐 대신 경제살리기를 운운

한 범국민집회를 가지었다. 참가자들은 《특별법을 제정하라》, 《〈대통령〉은 약속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외쳤다.

집회에서는 발언들이 있었다.

《세월》호사고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가족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현 집권자가 《세월》호의 진상을 밝힐 대신 경제살리기를 운운



장애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하키키로 하겠다

* 조선장애자보호련맹 중앙위원회 김문철부위원장과 나눈 이야기 *

기자: 조선장애자보호련맹이 창립된지 16년이 된다. 이와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한다.

김문철: 장애자보호사업은 장애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의 사회정치적권리와 자유를 건강하고 똑같이 보장하여 그들이 값높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도록 하는 사업이다.

우리 나라에서 장애자보호사업은 해방후 새 조국건설시기부터 진행되어온 것으로서 력사가 매우 오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1946년 6월에 발표하신 《북조선로동자, 사무원에 대한 로동법령》(제18조)에서 로동으로 인한 불우자나 직업으로 생긴 병에 의하여 근무할수 없는 사람들의 생활조건보장대책을 제시하시어 우리 나라 장애자보호사업의 시초를 열어놓으셨다.

나라에서는 조국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몸바쳐 싸우다 부상당한 영예군인들을 비롯한 불우자들을 사회적으로 우대하고 그들의 생활을 따뜻이 돌보아주는 것을 시종일관한 시책으로 제시하였다.

없는 불우자들의 생활조건도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하는데 대한 시책에 따라 1961년 10월 《영예군인보양소, 양로원 및 양생원에 관한 규정》이 나오고 전국도처에 양생원들이 설치되었으며 그들이 6월 《양로원, 양생원증여자공급기준》에 의하여 돌볼 사람이 없는 장애자들에게 국가부담으로 일체 생활필수품과 생활조건이 보장되게 되었다.

장애자보호사업을 위한 회복지회체가 정연히 세워져 있고 여러곳에 영예군인들과 장애자들을 위한 로양소들이 있다. 이렇듯 우리 나라에서 장애자보호사업은 해방후부터 오늘까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기자: 조선장애자보호련맹은 어떤 사명을 수행하는가.

김문철: 조선장애자보호련맹은 장애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대변하고 옹호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다.

조선장애자보호련맹의 전신은 1998년 7월 29일 보건성 인구연구소(당시)산하에 조직된 조선불우자지원협회이다. 그후 2003년 10월 조선불우자지원협회가 조선장애자지원협회로, 2005년 7월에는 조선장애자보호련맹 중앙위원회로 발전하였다.

장애방지 및 기능회복은 련맹의 변함없는 주요활동방향이다.

조선장애자보호련맹에서는 《장애자의 날》을 비롯한 여러 계기를 리용하여 장애자사업에 대한 사회적인식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다양하게 조직진행하고 있으며 6월 18일 《민족장애자의 날》과 12월 3일 《국제장애자의 날》 기념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기자: 공화국에서 장애자들의 활동은 장애자보호법에 의해 법적으로 담보되고 있다고 본다.

김문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장애자보호법은 장애자보호법의 기본, 장애자의 회복치료, 장애자의 교육

등 3개 장에 54조로 구성되어 있다. 그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447호에 의하여 장애자보호법이 새롭게 수정보충되었다.

여기에서는 장애자의 체육과 문화정서생활조직을 비롯한 문화생활분야, 장애자전문기업소, 단체의 조직과 로동시간을 비롯한 로동생활분야, 장애자보호사업추진과 생활환경보장, 장애자의 후견업무 등 이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분야를 수정보충하였다.

하여 장애자보호문제가 단순한 인도주의적인 문제로가 아니라 인간의 모든 운명과 미래를 책임지고 돌보는 인간존중사회의 우월성을 뚜렷이 과시하고 장애자들에게 정신육체적회복과 교육, 체육, 예술활동을 비롯한 물질문화활동조건을 충분히 보장해주는 문제들을 법적으로 담보할수 있게 되었다.

기자: 조선장애자보호련맹이 여러 국제기구들과 다양한 협력사업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김문철: 그렇다. 련맹에서는 국제기구들과의 협조를 통하여 장애자보호시책이 더 큰 은을 내도록 하는데 이바

지하였으며 2012년 2월 헬싱키에서 세계통일련맹과 조선장애자보호련맹 중앙위원회 사이에 호상협력에 관한 량해문을 체결하고 세계통일련맹과 4개년협조계획을 작성하여 평양에 세계통일련맹출장소를 개설운영하고 있다.

련맹에서는 장애자사업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민족의 단합을 이룩하는데 이바지하려는 해외동포단체들과 개별적인사들과의 련계를 긴밀히 해나가고 있다. 조선장애자지원아기금과 국제푸른나무재단이 공동설립한 민족장애인원아지원협력사무소의 공동운영이 활성화되어감에 따라 미국에 있는 《산호세 은누리교회》, 《작은 나눔》을 비롯한 해외동포단체들과 인사들이 조국의 장애자, 원아들을 위한 협력사업에 참가하고 있다.

우리는 앞으로도 장애자보호사업을 발전시켜나갈수 있는 토대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국제기구들과 해외의 여러 단체들과 인사들의 교류와 협력사업을 보다 강화해나갈 것이다.

기자: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어 감사하다.



제4차 라선국제상품전시회 진행

제4차 라선국제상품전시회가 18일부터 21일까지 라선시에서 진행되었다.

18일 개막식이 있었다. 개막식에는 제4차 라선국제상품전시회 조직위원회 위원장인 조경호 라선시인민위원회 위원장, 관제부문인군들, 라선시내 근로자들과 여러 나라의 대표들, 출품자들, 라선경제무역지대에서 기업활동을 하고있는 외국인들이 개막식에 참가하였다.

개막식에서는 개막연설이 이어 축하연설들이 있었다. 연설자들은 자주화를 지향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공동으로 경제를 발전시키고 부흥하려는 세계 여러 나라 정부와 경제단체들, 무역회사들의 공동된 지향과 성실성의 노력에 의하여 제4차 라선국제상품전시회가 열리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중국, 로씨야, 이탈리아, 타이완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출품한 70여종에 6만 4 000여점의 전기전자제품과 경공업제품, 식료이용 및 의약품들, 문헌자료 등이 전시되었다. 전시회기간 여러 나라의 회사들과 인사들사이의 폭넓고도 다방면적인 과학기술교류, 무역거래 등이 있었으며 라선경제무역지대투자도 활발하였다.

본사기자

처음으로 밝혀진

고구려시기의 소금생산기술

김일성종합대학 력사학과와 인류진화발전사연구소, 온천군 원읍고급중학교 교원, 연구사, 학생들이 온천군에서 고구려시기의 소금생산유적을 처음으로 조사발굴하였다.

지난 시기 우리나라에서의 소금생산력에 대한 연구사업을 심화시키는 과정에 연구집단은 2012년부터 여러차례에 걸쳐 온천군 원읍지구에서 유적조사 및 발굴사업을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 원읍동토자에서 북동쪽으로 약 3km정도 떨어진 관가리의 나지막한 언덕에서 고구려시기의 소금생산시설로 볼수 있는 유적과 유물들을 찾아냈다.

유적은 크게 두개 부분으로 이루어졌다. 우선 돌과 벽돌로 축조된 구조물이 발견되었다. 이 구조물은 아궁이시설과 연소실, 내굴길시설로 이루어졌다.



온천군에서

아궁이시설에는 아궁이멍과 그 량옆에 두개의 재처리용 구멍이 들어 있었다. 돌로 네 벽을 축조한 연소실의 바닥은 돌과 석회를 섞어 다진것이며 그 밑에서 열을 받은 불그릇에 열효율이 발견되었다.

연소실의 뒤부분에는 연기가 빠지는 내굴길시설이 있는데 그 중간부분에 원형의 그릇을 올려놓을수 있게 내굴길벽을 깎아내어 만든 공간이 있었다.

또한 검은색의 재가 두껍게 깔린 옹돌이시설을 찾아냈다. 이 옹돌은 바다물을 끓여들일수 있는 도량과 연결되어있고 그 중심에 돌을 일정한 높이로 쌓아놓은 부분이 있었다.

여러가지 종류의 질그릇, 벽돌, 쇠로 만든 평가마조각, 농어뼈는 쇠덩어리, 짐승뼈와 불 등 많은 유물들도 발견되었다.

새로 발굴된 유적은 고구려

시기의 바다소금생산유적이라는것이 판명되었다. 질그릇과 벽돌들은 4세기 중엽에 해당한것으로 고증되었다.

유적 주변 지층의 연도가 매우 높고 두터운 재층이 깔려있으며 바다물을 끓여들이는 도량이 형성된것은 유적이 당시에 바다물로부터 소금을 생산하던 시설이었다는것을 충분히 알수 있게 하여준다.

연구집단은 이러한 유적과 유물들을 통하여 당시에 옹돌이시설에서 식물의 재를 리용하여 바다물의 염도를 높이고 그것을 쇠가마에서 끓이는 방법으로 소금을 생산하였다는것을 해명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소금생산과 관련한 유적이 발굴되고 고구려시기의 소금생산기술의 면모가 밝혀짐으로써 당시 우리 민족문화의 높은 발전수준과 독자성이 더욱 뚜렷이 실증되었다.

본사기자

교양, 수양 (1)

《보석도 닦아야 빛이 난다.》

사람은 끊임없이 수양하고 단련해야 사람다운 일을 할수 있다는것을 이르는 말이다.

《남의 지식 홍보지 말고 내 지식 가르치라.》

남의 지식의 잘못을 말하기 전에 자기 지식에게 그런 잘못이 없는가를 살펴보고 가르치라는 말이다.

《보는바가 크면 이루는바도 크다.》

사물현상을 관찰하는바가 넓어야 더 큰 결과를 이룰수 있다는 뜻으로 모든것을 넓은 안목을 가지고 크게 볼 줄 알아야 한다는것을 이르는 말이다.

계절에 따르는 잠시간

사람들은 늘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면 정신이 좋아진다.》고 말한다.

그러나 옛사람들의 경험에 의하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것은 모든 계절에 적용되는것이 아니고 건강에 제 일 유익한것도 아니다.

즉 봄과 여름 두 계절에는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야 하며 가을에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하며 겨울에는 일찍 자고 늦게 일어나야 한다.

이 원칙에는 과학적근거가 있다.

봄과 여름에는 날씨가 덥기때문에 일찍 자면 잠들기 힘들거나 잘 잠들지 못하게 되어 쉽게 잠들수 있다.

또한 이 계절에 해가 일찍 뜨므로 일찍 일어나게 되며 따라서 사람은 자연적으로 생활 리용할수 있는 시간이 짧아진다.

가을이면 날씨가 서늘하고 날이 빨리 어두워지기때문에 일찍 자면 밤의 령기를 받지 않으며 날씨가 서늘하고 활동하기에 제일 알맞는 계절이므로 일찍 일어나야 충분히 리용할수 있는 시간이 많아진다.

겨울에 너무 일찍 일어나면 찬바람을 맞기 쉽기때문에 해가 떠오르고 날씨가 따스해질 때 일어나서 활동하는것이 좋다.

본사기자

세계바둑대항전(제17회) 개막식

조선의 컴퓨터바둑프로그램이 세계 으뜸의 명품으로 되었다.

그 상표가 바로 《은성》 컴퓨터바둑프로그램이다. 바둑이건 장기건 인공지능유체제품에 한해서는 세상사람들은 조선의 《은성》 컴퓨터바둑프로그램을 찾는다.

조선의 컴퓨터바둑프로그램 《은성》이 세계바둑대항전에서 지금으로부터 16년전인 1998년이 되었다.

이해에 진행된 제4차 호스트컴바둑프로그램세계전수권대회에서 조선의 바둑프로그램은 제노라라는 강팀들을 누르고 1등을 쟁취하였다. 그후부터 조선의 바둑프로그램은 련전연승하였는데 호스트컴바둑프로그램세계전수권대회이후에 진행된 세계컴퓨터바둑대회에서도 련승 우승하여 7연승을 기록하였다.

그후 공화국에서는 과학기술적으로 보다 고급한 바둑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 세계에서 제노라고 하는 바둑프로그램들과 겨루기 진행되었다. 여기에서도 승리의 열매를 딴것은 《은성》 컴퓨터바둑프로그램이었다.

이 나날 《은성》의 지위는 더 공고해지고 명성은 더 높아졌다. 사람들은 인공지능제품에 한해서는 《은성》이라는 상표만 보고도 의심하지 않고 구매한다.

《은성》이 세계가 품질을 인정하는 명품이 된 것이다. 올해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판매사이트 아마존이 공개한 지능제품판매시장조사자료에 의하면 《은성》 14가 판매량이나 품질에서 여전히 세계 제 1위였다. 이것은 벌써 여러해동안 유지되고있는 승수이다.

《은성》에 대한 구매자들의 말, 《나는 사실 《은성》

의 위력에 도전해볼 생각으로 세계적으로 아주 강하다고 하는 Zenith시간제한 15s로 대국시켰다. 결과는 내가 바라던대로가 아니라 《은성》의 승리로 끝났다. 마치 사람이 바둑을 하는듯 한 느낌을 받았다.

《세계 바둑프로그램의 거물이라고 하는 Zenith는 최근년간 부지런히 《은성》을 따라잡느라 애를 쓰지만 CPU를 36개나 리용하면서도 불과 6개의 CPU를 리용하는 《은성》을 이기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신화라고 말할수 없는 현상이다.》...

오늘 공화국에서 바둑프로그램개발은 하나의 산업을 형성하는 집단으로 발전하였다. 《은성》 개발자들은 오늘날 매일도 《은성》과 같은 신용과 권위를 가진 정보기술제품들로 강성국가건설에 적극 이바지해나갈것이다.

본사기자

여러가지 양념을 같이 쓸 때 그의 어울림에 따라 양념 같이 약하게 느껴질수도 있고 어떤 때에는 더 강하게 느껴질수도 있다.

후추가루를 넣은 음식에 고추가루를 같이 쓰면 맛과 냄새가 잘 어울리지 않을뿐 아니라 후추냄새는 전혀 나지 않는다.

맛내는 0.9~1%정도의 소금물에 풀었을 때 감칠맛이 제일 잘 난다.

개가루에 소금을 약간 넣으면 고소한 맛이 더 난다.

본사기자

양념감의 어울림

사화

불독하니 (1)

글 리빈, 그림 김윤일

짜이지른듯 가파로운 아사봉 중턱까지 올라가서야 해묵은 돌바위 한층을 겨우 걸어서 양사방은 월정사를 향하여 양사방이 되었다.

무릎을 넘는 논때문에 힘에 겨웠다. 미끄러지고 덩굴때마다 그의 입에서는 한탄이 새어나왔다. 《이게 다 늙은탓이야, 원 줄도 훨씬 지났으니...》

지금 사찰에서선 예순을 넘긴 로승을 것이 열병에 걸려 신을하고있었다. 해묵은 돌바위는 그들의 병치레에 쓸 약재였다.

젊은 승려 둘은 겨울나기 식량을 마련하기 위해 동남강을 떠난지 벌써 달오가 썩지났지만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흥년이어서 날알 한되박 안기까지 할지 않을지였다. 이런 사정으로도 하여 사찰에 남은 사람들 가운데서 성한 사람은 저 하나뿐인 양사방이 병인들을 구원하고있다는 것이다.

그의 집은 사찰에서 동쪽인 안악방향으로 이십여리밖

의 룡연마을에 있었다. 마을 앞에는 활 두어바탕 넓이의 큰 못이 펼쳐져있다. 옛날이 못에서 뽕이 날아오른적이 있었다 하여 마을에 《룡연》이라는 이름이 붙은것이라고 유래가 전해오고있다. 양사방네 집안은 조상대대로 월정사에서 불목하니노릇을 하여왔다.

불목하니란 절에서 밭을 짓고 불을 때며 물을 길고 청소를 하는 속인을 말한다.

할아버지, 아버지가 그리 해왔듯 양사방은 한달에 그저 두세번 집에 갔다올뿐 나날의 거의 전부를 월정사에서 살았다. 사찰은 양사방에게 있어 다른 또 하나의 가정이었다.

... 사찰문안에 들어서던 그는 와들 놀랐다. 부처를 모신 본당인 극락보전의 한쪽 문이 푹 떨어져 되돌아매에 구겨박혀있고 마당 원경의 수월당(승려들과 손님들이 거처하는 집)도

우에는 늙은 승려들 셋이 쓰러져있지 않는가!

수월당으로 황급히 달려간 양사방은 승려들을 일일이 살펴보았다. 착한 승려들은 그 처럼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도로 퍼덕 떨어졌다. 양사방은 이들이 죽은것만 같아 더러워 겁이 났다. 사찰안에는 아무도 다른 사람이 없는줄 뻔히 알면서도 어쩔수 없이 사방으로 구원을 찾은건일이 허둥거렸다. 얼마만큼 지나서 주지가 반쯤 눈을 떴다감으며 입술을 움직거렸다.

《주지님!》

양사방은 비통하게 부르짖으며 열결에 그의 머리를 자기 무릎위에 올려놓았다. 주지는 눈을 감은채로 간신히 말마디를 이어가며 이런 사연을 전하였다.

양사방이 아사봉으로 떠난 뒤 얼마쯤 지나서 왜놈헌병 다섯놈이 달려들었다. 놈들은 승려들에게 여기에서 금산포(은물)가 몇리나 되는가, 그리로 가는 길이 어디

로 나있는가, 금산포에서 남포까지는 또 몇리인가, 승려들은 모두 멧민데 지금 다 있는가, 칭성드러라 와있는 속인들은 없는가를 시시콜콜히 캐물었다.

놈들은 이런 질문을 꽤 잘 번지였다. 이 땅을 통째로 삼키려고 날뛰는 놈들이라 일부터 우리 말을 익힌 도양이었다. 착한 승려들은 그 놈들의 물음에 곧이곧대로 정직하게 대답해주었다. 나중이 놈들은 부처의 이마에 순금으로 장식한 백호(일명 《기미》라고 함.)를 내놓으라고 강박하였다.

승려들이 무섭게 쏘아볼뿐 끄떡하지 않자 놈들은 부처에게 달려들어서 총창으로 백호를 파내려고 덤벼쳤다. 승려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놈들의 총창앞에 가슴을 내대었다. 악에 받친 놈들은 그들을 총창으로 후려쳐서 쓰러뜨린 다음 머리를 마구 짓밟고 걸어쳤다. 이어서 야수들은 백호를 뽑아가지고 도망을 쳤다. 승려들은 간신히 수월당 도방까지 기어와서 정신을 잃고말았다. ... 주지는 끝으로 당부하였다.

《...이사람 양사방, 나는 왜놈들이 사찰뒤로 빠지는것까지 보고는 이렇게... 금산포로 가는 길을 자세히 물었고 또 뒤산으로 오르면 보던 놈들이 금산포로 간것이 틀림없네. 양사방, 어떻게 하든 목숨을 내대고서라도 놈들한테서 그 백호를 뺏어오라구. 그 백호가 어떤것인가 말이네. 우리 단군성왕님의 상징

이것이구나. 놈들이 사찰뒤로 빠지는것까지 보고는 이렇게... 금산포로 가는 길을 자세히 물었고 또 뒤산으로 오르면 보던 놈들이 금산포로 간것이 틀림없네. 양사방, 어떻게 하든 목숨을 내대고서라도 놈들한테서 그 백호를 뺏어오라구. 그 백호가 어떤것인가 말이네. 우리 단군성왕님의 상징

이것이구나. 놈들이 사찰뒤로 빠지는것까지 보고는 이렇게... 금산포로 가는 길을 자세히 물었고 또 뒤산으로 오르면 보던 놈들이 금산포로 간것이 틀림없네. 양사방, 어떻게 하든 목숨을 내대고서라도 놈들한테서 그 백호를 뺏어오라구. 그 백호가 어떤것인가 말이네. 우리 단군성왕님의 상징

이것이구나. 놈들이 사찰뒤로 빠지는것까지 보고는 이렇게... 금산포로 가는 길을 자세히 물었고 또 뒤산으로 오르면 보던 놈들이 금산포로 간것이 틀림없네. 양사방, 어떻게 하든 목숨을 내대고서라도 놈들한테서 그 백호를 뺏어오라구. 그 백호가 어떤것인가 말이네. 우리 단군성왕님의 상징

이것이구나. 놈들이 사찰뒤로 빠지는것까지 보고는 이렇게... 금산포로 가는 길을 자세히 물었고 또 뒤산으로 오르면 보던 놈들이 금산포로 간것이 틀림없네. 양사방, 어떻게 하든 목숨을 내대고서라도 놈들한테서 그 백호를 뺏어오라구. 그 백호가 어떤것인가 말이네. 우리 단군성왕님의 상징

이것이구나. 놈들이 사찰뒤로 빠지는것까지 보고는 이렇게... 금산포로 가는 길을 자세히 물었고 또 뒤산으로 오르면 보던 놈들이 금산포로 간것이 틀림없네. 양사방, 어떻게 하든 목숨을 내대고서라도 놈들한테서 그 백호를 뺏어오라구. 그 백호가 어떤것인가 말이네. 우리 단군성왕님의 상징

이것이구나. 놈들이 사찰뒤로 빠지는것까지 보고는 이렇게... 금산포로 가는 길을 자세히 물었고 또 뒤산으로 오르면 보던 놈들이 금산포로 간것이 틀림없네. 양사방, 어떻게 하든 목숨을 내대고서라도 놈들한테서 그 백호를 뺏어오라구. 그 백호가 어떤것인가 말이네. 우리 단군성왕님의 상징

이것이구나. 놈들이 사찰뒤로 빠지는것까지 보고는 이렇게... 금산포로 가는 길을 자세히 물었고 또 뒤산으로 오르면 보던 놈들이 금산포로 간것이 틀림없네. 양사방, 어떻게 하든 목숨을 내대고서라도 놈들한테서 그 백호를 뺏어오라구. 그 백호가 어떤것인가 말이네. 우리 단군성왕님의 상징

이것이구나. 놈들이 사찰뒤로 빠지는것까지 보고는 이렇게... 금산포로 가는 길을 자세히 물었고 또 뒤산으로 오르면 보던 놈들이 금산포로 간것이 틀림없네. 양사방, 어떻게 하든 목숨을 내대고서라도 놈들한테서 그 백호를 뺏어오라구. 그 백호가 어떤것인가 말이네. 우리 단군성왕님의 상징

이것이구나. 놈들이 사찰뒤로 빠지는것까지 보고는 이렇게... 금산포로 가는 길을 자세히 물었고 또 뒤산으로 오르면 보던 놈들이 금산포로 간것이 틀림없네. 양사방, 어떻게 하든 목숨을 내대고서라도 놈들한테서 그 백호를 뺏어오라구. 그 백호가 어떤것인가 말이네. 우리 단군성왕님의 상징

이것이구나. 놈들이 사찰뒤로 빠지는것까지 보고는 이렇게... 금산포로 가는 길을 자세히 물었고 또 뒤산으로 오르면 보던 놈들이 금산포로 간것이 틀림없네. 양사방, 어떻게 하든 목숨을 내대고서라도 놈들한테서 그 백호를 뺏어오라구. 그 백호가 어떤것인가 말이네. 우리 단군성왕님의 상징

이것이구나. 놈들이 사찰뒤로 빠지는것까지 보고는 이렇게... 금산포로 가는 길을 자세히 물었고 또 뒤산으로 오르면 보던 놈들이 금산포로 간것이 틀림없네. 양사방, 어떻게 하든 목숨을 내대고서라도 놈들한테서 그 백호를 뺏어오라구. 그 백호가 어떤것인가 말이네. 우리 단군성왕님의 상징

이것이구나. 놈들이 사찰뒤로 빠지는것까지 보고는 이렇게... 금산포로 가는 길을 자세히 물었고 또 뒤산으로 오르면 보던 놈들이 금산포로 간것이 틀림없네. 양사방, 어떻게 하든 목숨을 내대고서라도 놈들한테서 그 백호를 뺏어오라구. 그 백호가 어떤것인가 말이네. 우리 단군성왕님의 상징

이것이구나. 놈들이 사찰뒤로 빠지는것까지 보고는 이렇게... 금산포로 가는 길을 자세히 물었고 또 뒤산으로 오르면 보던 놈들이 금산포로 간것이 틀림없네. 양사방, 어떻게 하든 목숨을 내대고서라도 놈들한테서 그 백호를 뺏어오라구. 그 백호가 어떤것인가 말이네. 우리 단군성왕님의 상징

이것이구나. 놈들이 사찰뒤로 빠지는것까지 보고는 이렇게... 금산포로 가는 길을 자세히 물었고 또 뒤산으로 오르면 보던 놈들이 금산포로 간것이 틀림없네. 양사방, 어떻게 하든 목숨을 내대고서라도 놈들한테서 그 백호를 뺏어오라구. 그 백호가 어떤것인가 말이네. 우리 단군성왕님의 상징

이것이구나. 놈들이 사찰뒤로 빠지는것까지 보고는 이렇게... 금산포로 가는 길을 자세히 물었고 또 뒤산으로 오르면 보던 놈들이 금산포로 간것이 틀림없네. 양사방, 어떻게 하든 목숨을 내대고서라도 놈들한테서 그 백호를 뺏어오라구. 그 백호가 어떤것인가 말이네. 우리 단군성왕님의 상징

이것이구나. 놈들이 사찰뒤로 빠지는것까지 보고는 이렇게... 금산포로 가는 길을 자세히 물었고 또 뒤산으로 오르면 보던 놈들이 금산포로 간것이 틀림없네. 양사방, 어떻게 하든 목숨을 내대고서라도 놈들한테서 그 백호를 뺏어오라구. 그 백호가 어떤것인가 말이네. 우리 단군성왕님의 상징

이것이구나. 놈들이 사찰뒤로 빠지는것까지 보고는 이렇게... 금산포로 가는 길을 자세히 물었고 또 뒤산으로 오르면 보던 놈들이 금산포로 간것이 틀림없네. 양사방, 어떻게 하든 목숨을 내대고서라도 놈들한테서 그 백호를 뺏어오라구. 그 백호가 어떤것인가 말이네. 우리 단군성왕님의 상징

이것이구나. 놈들이 사찰뒤로 빠지는것까지 보고는 이렇게... 금산포로 가는 길을 자세히 물었고 또 뒤산으로 오르면 보던 놈들이 금산포로 간것이 틀림없네. 양사방, 어떻게 하든 목숨을 내대고서라도 놈들한테서 그 백호를 뺏어오라구. 그 백호가 어떤것인가 말이네. 우리 단군성왕님의 상징

이것이구나. 놈들이 사찰뒤로 빠지는것까지 보고는 이렇게... 금산포로 가는 길을 자세히 물었고 또 뒤산으로 오르면 보던 놈들이 금산포로 간것이 틀림없네. 양사방, 어떻게 하든 목숨을 내대고서라도 놈들한테서 그 백호를 뺏어오라구. 그 백호가 어떤것인가 말이네. 우리 단군성왕님의 상징

이것이구나. 놈들이 사찰뒤로 빠지는것까지 보고는 이렇게... 금산포로 가는 길을 자세히 물었고 또 뒤산으로 오르면 보던 놈들이 금산포로 간것이 틀림없네. 양사방, 어떻게 하든 목숨을 내대고서라도 놈들한테서 그 백호를 뺏어오라구. 그 백호가 어떤것인가 말이네. 우리 단군성왕님의 상징

이것이구나. 놈들이 사찰뒤로 빠지는것까지 보고는 이렇게... 금산포로 가는 길을 자세히 물었고 또 뒤산으로 오르면 보던 놈들이 금산포로 간것이 틀림없네. 양사방, 어떻게 하든 목숨을 내대고서라도 놈들한테서 그 백호를 뺏어오라구. 그 백호가 어떤것인가 말이네. 우리 단군성왕님의 상징

이것이구나. 놈들이 사찰뒤로 빠지는것까지 보고는 이렇게... 금산포로 가는 길을 자세히 물었고 또 뒤산으로 오르면 보던 놈들이 금산포로 간것이 틀림없네. 양사방, 어떻게 하든 목숨을 내대고서라도 놈들한테서 그 백호를 뺏어오라구. 그 백호가 어떤것인가 말이네. 우리 단군성왕님의 상징

이것이구나. 놈들이 사찰뒤로 빠지는것까지 보고는 이렇게... 금산포로 가는 길을 자세히 물었고 또 뒤산으로 오르면 보던 놈들이 금산포로 간것이 틀림없네. 양사방, 어떻게 하든 목숨을 내대고서라도 놈들한테서 그 백호를 뺏어오라구. 그 백호가 어떤것인가 말이네. 우리 단군성왕님의 상징

이것이구나. 놈들이 사찰뒤로 빠지는것까지 보고는 이렇게... 금산포로 가는 길을 자세히 물었고 또 뒤산으로 오르면 보던 놈들이 금산포로 간것이 틀림없네. 양사방, 어떻게 하든 목숨을 내대고서라도 놈들한테서 그 백호를 뺏어오라구. 그 백호가 어떤것인가 말이네. 우리 단군성왕님의 상징